

올레길·숲길·둘레길 등
생태·문화 탐방길 적정수요 분석 연구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연구요약

I. 서 론

1. 연구배경

- 전국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슬로우 관광의 으뜸인 올레길과 생태탐방코스 가운데 하나인 숲길 등 생태·문화 탐방길이 많이 조성되고 있으나, 탐방객들의 답압(踏壓)에 의해 조금씩 파괴되고 있고, 탐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탐방객의 적정수요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길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올레길을 비롯한 걷는 길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탐방객이 제시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

2. 연구목적

- 걷는 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걷는 길 이용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걷는 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모델을 적용한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 산출
- 걷는 길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레길을 사례로, 올레길 탐방객의 관광유형, 소비패턴,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
- 지속가능한 걷는 길 유지방안 도출과 올레길 위험요소 파악과 안전한 올레길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3.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분석
- 기존계획 및 법률 검토 : 현재 추진중인 탐방로 계획 및 현황 분석

2) 설문조사

- 기존조사가 올레길의 통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문화 탐방길 중 가장 활성화 된 올레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II. 생태문화 탐방길 개념과 현황분석

- 생태문화 탐방길을 정의하면 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탐방로', 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등산로'나 '산길'로 해석되기도 하며, 종교, 문화, 역사, 자연자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음
- 탐방로의 유형은 자연생태적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중심형 탐방로(natural based root)와 인근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심형 탐방로(cultural based root)로 나누어지며, 자연과 문화의 두 요소를 모두 중요시하는 혼합형 탐방로도 존재함
- 테마별로 보면 역사탐방로, 자연산책로, 트래킹코스, 웰빙코스, 문학 및 인물탐방로 등 매우 다양하며, 지역별로 보면 경남북과 전남북에 많은 코스가 있으며, 주요 코스로는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소길 등이 있음

III.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요 분석

1. 올레길 적정수용력 분석

- 2013년 6월 22일~23일 양일간 7코스와 10코스 올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수를 파악한 결과, 7코스의 경우 토요일은 1,775명, 일요일은 941명으로서 평균 1,358명이 탐방하였고, 10코스의 경우 토요일은 505명, 일요일은 125명으로서 평균 315명이 탐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장에서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탐방객수를 매시간별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 7코스의 경우에는 탐방객의 65.0%가 '오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28.7%이며,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는 탐방객은 6.3%으로 나타남
- 10코스의 경우에는 55.2%가 '오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39.2%이며,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는 탐방객은 5.6%인 것으로 조사됨
- 코스별 적정 증감률에 따른 사회·심리적 수용력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는 조사 당일 탐방객 수(1,673명, 7·10코스 합산)보다 38.9% 정도 늘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코스별로는 7코스와 10코스가 각각 38.4%, 21.1% 늘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I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 ① 종합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 탐방객을 통제할 강제수단이 없는 현시점에서 수치화 된 수용력(사회·심리적)은 숫자에 불과하므로 결국 올레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태적 수용력 관리는 다양한 측면(탐방객수, 시·공간적 탐방집중도, 탐방로 훼손정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효율적인 올레길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올레길 관리목표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지표의 수정·변경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기준 마련이 적정 수용력 관리의 핵심
- ②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가 필요. 올레길 및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소길을 중심으로 국내코스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안내를 위한 다국어의 브러셔와 표지판 제작은 미흡한 편. 올레길 코스별 다국어안내 지도 혹은 표지판에 다국어 표기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올레길 탐방객 만족도에서 안내표지 부족이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올레길 탐방 중 위험한 요소나 요인으로 표지판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함

- ③ 스토리텔링을 통한 코스별 명칭이 필요. 코스별 스토리텔링이나 컨텐츠 개발을 통하여 코스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지역민들을 위한 코스로 뿐만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휴양·여가·교육적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 특히 올레길 명칭 변경에 반대(17.9%)보다는 찬성(54.9%) 응답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④ 코스 분할 개설이 필요. 돛배낭길~속골 해안변 탐방로의 위험으로 인해 우회하여 코스가 진행되고 있는 바 빠른 시일 내 탐방로 개설이 필요하여 돛배낭길~속골을 연결하는 신규 탐방로 개설과 함께 올레 7코스는 중국인 및 학생 단체 탐방객들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3시간 이내를 원하는 탐방객이 응답자에 반대 25.7%에 찬성 35.8%로 10%p 이상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신중한 정책적 판단이 요구됨
- ⑤ 화장실 개선이 필요. 현재 올레길 7코스에는 고정식 자연발효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 올레길 7코스에서의 화장실 이용은 개선될 것으로 봄. 향후에도 화장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탐방객을 배려하는 시설 개선 및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목 차

제1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방법	2
제2장 생태문화 탐방길 개념과 현황분석	3
1. 추진현황	3
2. 권역별 탐방길 조성계획	4
3. 관련법규	5
4. 관련계획 및 연구	9
5. 국내 생태문화 탐방길 현황	10
제3장 탐방수용력 모형의 국내·외 사례연구	43
1. 국내연구 사례	43
2. 국외연구 사례	51
제4장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요 분석	57
1. 수용력 개념 및 모델	57
2. 올레길 탐방 만족도 분석	59
3. 올레길 적정수용력 분석	69
4. 올레길 탐방실태 분석	73
5. 올레길 탐방 관련 기타 사항 분석	79
제5장 정책적 제언 및 결론	84
1.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84
2.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84
3. 스토리텔링을 통한 코스별 명칭 부여	85
4. 코스 분할 개설	85
5. 화장실 개선	85
참고문헌	86

<표 차례>

<표 2-1> 강원 주요 산소길	41
<표 3-1>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별 환경생태수용력 관리지수 초과시설 수용력 관리목표	46
<표 3-2> 지리산국립공원 구간별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 및 관리방안 분석	47
<표 3-3> Alcatraz Island 적정수용력 추정 결과	54
<표 3-4> 영향지표(indicator) 및 평가기준(standard)	56
<표 4-1> 올레길 혼잡도 예상	60
<표 4-2> 올레길 혼잡 정도	61
<표 4-3> 올레길 탐방객수와 탐방만족도 영향	62
<표 4-4> 올레길 탐방객의 탐방 방해 정도	63
<표 4-5> 올레길 소음 정도	64
<표 4-6> 올레길 무질서 여부	65
<표 4-7> 올레길 탐방만족도	66
<표 4-8> 올레길 재방문 의향	67
<표 4-9> 다른 시기 및 시간대 올레길 재방문 의향	68
<표 4-10> 올레길 탐방객 수	69
<표 4-11> 탐방인원 적정성	70
<표 4-12> 7·10코스 증감율 분석	71
<표 4-13> 7코스 증감율 분석	72
<표 4-14> 10코스 증감율 분석	72
<표 4-15> 올레길 안내판 만족도	74
<표 4-16> 올레길 환경 청정성 인식	75
<표 4-17> 올레길 안전성 인식	76
<표 4-18> 올레길 화장실 구비 여부	77
<표 4-19> 올레길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78

<표 4-20> 올레길 회로(回路) 편리성	79
<표 4-21> 올레길 적정 탐방 시간	80
<표 4-22> 올레길 코스 길이 분할 조정 찬반	81
<표 4-23> 올레길 휴식년제 도입 찬반	82
<표 4-24> 올레길 코스 명칭변경 방안 찬반	83

<그림 차례>

<그림 2-1> 제주 올레길 전체현황	11
<그림 2-2> 제주 올레 1코스	12
<그림 2-3> 제주 올레 1-1코스	13
<그림 2-4> 제주 올레 2코스	14
<그림 2-5> 제주 올레 3코스	15
<그림 2-6> 제주 올레 4코스	16
<그림 2-7> 제주 올레 5코스	17
<그림 2-8> 제주 올레 6코스	18
<그림 2-9> 제주 올레 7코스	19
<그림 2-10> 제주 올레 7-1코스	20
<그림 2-11> 제주 올레 8코스	21
<그림 2-12> 제주 올레 9코스	22
<그림 2-13> 제주 올레 10코스	23
<그림 2-14> 제주 올레 10-1코스	24
<그림 2-15> 제주 올레 11코스	25
<그림 2-16> 제주 올레 12코스	26
<그림 2-17> 제주 올레 13코스	27
<그림 2-18> 제주 올레 14코스	28
<그림 2-19> 제주 올레 14-1코스	29
<그림 2-20> 제주 올레 15코스	30
<그림 2-21> 제주 올레 16코스	31
<그림 2-22> 제주 올레 17코스	32
<그림 2-23> 제주 올레 18코스	33
<그림 2-24> 제주 올레 18-1코스	34
<그림 2-25> 제주 올레 19코스	35
<그림 2-26> 제주 올레 20코스	36

<그림 2-27> 제주 올레 21코스	37
<그림 2-28> 2011년도 제주 올레 코스 월별 탐방객 현황	38
<그림 2-29> 2012년도 제주 올레 코스 월별 탐방객 현황	38

I. 서 론

1. 연구 배경

- 전국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슬로우 관광의 으뜸인 올레길과 생태탐방 코스 가운데 하나인 숲길 등 생태·문화 탐방길이 많이 조성되고 있으나, 탐방객들의 답압(踏壓)에 의해 조금씩 파괴되고 있고, 탐방객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 훼손이 우려되고 있어 탐방객의 적정수요를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길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제주지역에는 2007년 9월 올레길 제1코스가 개방된 이후 2013년 8월말 현재 26개 코스 총길이 420km의 올레길이 개설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도 많은 코스의 탐방길이 조성되어 있어, 생태·문화 탐방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음
- 올레길을 비롯한 걷는 길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탐방객이 제시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설문조사를 실시

2. 연구 목적

- 걷는 길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걷는 길 이용행태에 대한 정확한 실태분석과 걷는 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모델을 적용한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 산출
- 걷는 길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올레길을 사례로, 올레길 탐방객의 관광유형, 소비패턴,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
- 지속가능한 걷는 길 유지방안 도출과 올레길 위험요소 파악과 안전한 올레길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올레길이 탐방객들의 단순한 탐방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올레길 주변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방안을 검토
- 올레길의 지속가능한 발전가능성을 모색한 통합적 모델 제시

3. 연구 방법

1) 문헌연구

- 국내외 연구 검토 : 국내외 사례분석, 관련 논문 및 보고서 분석
- 기존계획 및 법률 검토 : 현재 추진중인 탐방로 계획 및 현황 분석

2) 설문조사

- 기존조사가 올레길의 통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태문화 탐방길 중 가장 활성화 된 올레길의 탐방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II. 생태문화 탐방길 개념과 현황분석¹⁾

- 생태문화 탐방길의 본질적인 목적은 걷기라는 점에서 걷기 중심의 길 만들기과 문화확산은 이미 전 세계의 보편적 문화현상임
-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선정하고, 2007년 환경부에서 전국단위 국토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가이드라인 연구를 통하여 전국적인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생태문화 탐방길을 정의하면 공원과 관련해서는 '생태탐방로', 산이 있는 지역에서는 '등산로'나 '산길'로 해석되기도 하며, 종교·문화·역사·자연 자원을 체험하고 경험하면 걷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음
- 탐방로의 유형은 자연생태적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자연중심형 탐방로 (natural based root)와 인근 지역의 문화역사 자원을 배경으로 하는 문화중심형 탐방로(cultural based root)로 나누어지며, 자연과 문화의 두 요소를 모두 중요시 하는 혼합형 탐방로도 존재함

1. 추진현황

- 생태문화 탐방길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을 보면 제주권의 올레길, 지리산권의 둘레길, 충청권에서 추진중인 공주와 부여를 중심으로 한 백제역사도보길과 마곡사 중심의 불교문화체험길, 강원권의 백두대간과 동해를 잇는 바우길, 대관령 옛길 등이 있으며, 전라권에서는 마재길과 마실길 등이 개발되고 있고, 경상권에서는 대구의 올레코스, 낙동정맥, 부산 해안길 등이 개설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하여 추진중인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길은 국내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역사 자원을 스토리로 엮어 체험할 수

1) 도보여행의 활성화에 따른 과급효과 분석. 2010 문화체육관광부 재구성.

있는 걷기중심의 길로 앞으로 많은 탐방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

- 특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생태문화 탐방길을 걷는 탐방객들의 걷는 재미를 돋우고자 여행자 여권을 제작하였으며, 탐방객 여권은 각 탐방로 출발지, 종착지 등 주요거점에 비치됨

2. 권역별 탐방길 조성계획

- 충청남도는 천년고찰 공주 마곡사 조계종 제6교구 본사와 그 뒤 태화산 해발 423m의 소나무숲에 마곡사 솔바람길을 조성할 계획이며, 마곡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천연 송림욕을 즐기는 명품 산책로로 꾸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 수립
- 또한 2011년부터 태안군 안면송길, 서산시 가야산 보원사지 가는길, 예산군 예당호 길 산책로를 추가 조성하여 진행하고 있음
- 강원도에서는 백두대간과 동해를 잇는 환상적인 트레킹 코스 바우길이 2009년말까지 조성되어 산 애호가들로 구성된 강릉 바우길 개척대는 대관령 일대와 경포, 해안지역 등에 대한 현지답사를 거쳐 모두 10개 코스의 바우길을 개척하고 홍보하고 있음
- 바우길은 강릉 출신 소설가 이순원씨가 명명한 것으로, 강원도 사람을 소박하게 부르는 감자바우와 바빌로니아 신화에 등장하는 건강의 여신(Bau)에서 착안되었으며, 대관령 풍력발전단지, 대관령 옛길, 명주군 왕릉, 남향진, 학산마을, 안인항, 정동항 등 강릉 주변의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잇는 트레킹 코스임
- 전북에서는 고창군에서 열린 신화가 있는 질마재길을 시작으로 부안 변산반도 마실길 등 연내 5개 코스가 더 만들어질 예정이며, 도내 14개 시·군에 모두 1코스씩 개설할 계획임
- 질마재길은 미당 서정주(1915~2000)가 유년 시절 걷던 길로 미당 생가와 질마재, 인천강과 서해안을 끼고 선운사까지 40km이며, 부안 마실길은 새만금 방조제가 시작되는 변산면 대항리에서 시작하여 변산해수욕장과

고사포해수욕장을 걸쳐 격포항을 잇는 18km의 길로 이루어짐

- 광주의 무등산 옛길은 조상들이 땀나무를 하러 가거나 묘지를 찾아갔던 길로 최근 시민들에게 개방했으며, 원효사에서 정상 부근 서석대에 이르는 4.12km와 광주 동구 산수동 옛길 입구에서 무진고성, 청품쉼터에서 충장사를 거쳐 원효사에 이르는 7.75km의 3시간 코스도 개방하였음
- 전라남도는 2009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영광에서 광양까지 길이 2,500km의 해안선을 50개 구간으로 나눠 역사·문화·생태 탐방길 남도갯길 6,000리 길로 조성키로 하였음
- 대구에서는 시민단체인 대구 녹색소비자연대가 2008년 2개의 올레코스를 개발했는데 1코스는 동구 금초강을 따라 걷는 강 길이고, 2코스는 동구 불로동 불로고분군을 따라 걷는 길로 봄과 가을의 역사가 장관인 곳임
- 경북에서는 『낙동정맥 트레킹로드』 400km(봉화 샷갯봉~청도 가지산)를 조성하고 산악자전거로, 산악승마장, 오토캠핑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국민에게 다채로운 산림휴양 서비스공간을 제공하고 범국민적 걷기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백두대간 지역까지 확대하여 총 1,000km의 트레킹로드를 조성할 계획임
- 부산은 해송(海松)과 절벽 기암괴석의 절경이 어우러진 해안의 산책로를 걷고 싶은 길로 지정하여 관광명소로 대대적 홍보에 나서고 있음
-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길의 문탠로드, 남구 용호3동 이기대 해안산책로, 해운대구 우동 동백섬 순환로, 영도구 영선동4가 절영 해안산책로, 서구 암남동 암남공원 해안산책로, 사하구 다대2동 두송반도 해안길 산책로 등이 있음

3. 관련법규

- 자연환경보전법(법률 제4492호)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생태계의 보전 및 야생 동·식물의 멸종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임
- 주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

에서의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내용으로 구성

- 관광분야에서는 완충지역내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전이지역 내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숙박·판매 등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 도보여행의 탐방로 개설과 관련된 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신축건축물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법규 내 생태관광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생태관광에 대한 정의와 지방 자치단체, 관광사업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생태관광에 필요한 교육, 생태관광자원의 조사, 발굴 및 국민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내용이 있음
-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검토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생태마을의 지정기준, 해제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음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자연환경의 완충구역과 전이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행위와 제한되는 행위의 범위가 각각 규정됨
- 농지법, 하천법, 수도법은 도보코스 구성에 있어 자연환경보전법 이외 자연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확인하여야 하는 법률임
- 농지법 법률(제9758호) 제34조는 농지의 전용허가·협의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수산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 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하천법 법률(제9763호) 제33조는 하천의 점용허가에 관한 법률에서 하천 구역안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나 변경을 할때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토지의 점용
 - 하천시설의 점용
 -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
 -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 수도법 법률(제9774호) 제7조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법률에서 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 변경
- 관광진흥법(법률 제9097호)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임
- 본 법규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와 관련하여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환경훼손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인 정보제공과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됨

- 관광진흥개발기금법(법률 제9469호) 중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資與)할 수 있음
 -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 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 지방재정법(법률 제9926호) 중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함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926호) 중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은 다음과 같음
 - 관광지·전적지 개발 : 50%
 - 휴양림 조성 : 70%
 - 휴양림 보완 및 삼림육장 : 50%
 - 공공박물관 건립 : 30%(용지매립비 제외)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70%
 -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50%
 - 청소년수련원·야영장·유스호스텔 : 30%

4. 관련계획 및 연구

1) 국가등산로체계 구축계획(산림청, 2007)

- 전국 등산로의 유형 및 등급을 구분하고 있으며 등산로의 특성, 지원주체 등에 따라 국가등산로, 지방등산로, 지역등산로로 구분하고, 노선의 입지 여건 및 이용형태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있음. 등산로의 등급은 보행 여건에 따라 이용등급을 구분하고 있음
- 이에따라 백두대간과 9개 정맥 산줄기의 주요 등산로를 국가등산로로 지정,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관할 지역 내 등산로의 지방 등산로 지정을 유도하고 있음
- 주요 산줄기 등산로를 기반으로 전국 등산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등산로간 연계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결로를 발굴토록 하고 있음
- 지역차원에서 기존 대간 등산로 및 임도 등을 기초로 한 특색있는 숲길 조성을 도모하며, 권역별로 다양한 주제를 갖는 체험형(학습, 레포츠, 경관 등) 노선의 발굴을 도모하고 있음

2)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 (환경부, 2007)

- 생태탐방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2006)의 핵심과제인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뒷받침하는 실행계획인 「전국단위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안(환경부, 2007)에서 제시된 개념으로서,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가치 있는 자연자원 및 생태적 배경을 가진 문화·역사자원을 보다 쉽게 찾고,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조성된 도보 중심의 길을 의미함
- 생태탐방로는 전국단위로 자원과 자원을 연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기존 유사시설에는 탐방로, 자연관찰로, 등산로 등이 있음. 생태탐방로는 정상등반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이나 마루금을 타고 종주하는 트레킹 행태는 지양하고, 가족단위 남녀노소의 일반인들이 그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길들을 발굴하여 조성·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09)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는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 역사자원을 특성 있는 스토리로 엮어 국내외 탐방객들이 느끼고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도보중심의 길을 의미함
-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 및 문화·역사자원과 연계하는 탐방로로 역사탐방, 문화체험 및 교류, 생태학습, 건강증진 및 정신적 치유, 여가휴양 등을 위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형, 생태형, 복합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세부적으로 보면 문화형은 역사문화형, 예술문화형, 생활문화형으로 재구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테마스토리를 중심으로 구간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로는 네트워크화를 통한 전국단위 탐방로를 조성하되, 환경부, 산림청 등 타 부처 탐방로 사업과 연계·네트워크화를 통한 전국 규모 장거리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함

5. 국내 생태문화 탐방길 현황

- 생태문화 탐방길은 제주 올레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조성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약 60여개 도시에서 100여개의 코스가 있음
- 테마별로 보면 역사탐방로, 자연산책로, 트래킹코스, 웰빙코스, 문학 및 인물탐방로 등 매우 다양하며, 지역별로 보면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많은 코스가 있으며, 주요 코스로는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소길 등이 있음

1) 올레길²⁾

(1) 일반현황

- 2007년 9월 8일 제1코스 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km가 개발된 이래 2012년 11월 24일 21코스를 마지막으로 섬 일주로가 완성
- 2011년에는 109만명이 체험했고, 개장한지 5년만에 425km의 올레길이 완성되었으며,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km 이내이며, 평균 소요시간이 5~6시간 소요
- 주로 제주의 해안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 존재
- 전국적으로 도보여행 열풍을 가져왔고, 올레길의 성공 이후 전국에서 도보여행 코스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지리산 둘레길, 남해 지깃길, 무등산 옛길, 충남연가, 경기 남한산성길 등이 대표적임



<그림 2-1> 제주 올레길 전체현황

2) 제주 올레 <http://www.jejuolle.org/> 자료 재구성.



<그림 2-2> 제주 올레 1코스

- 개장일시 : 2007년 9월
- 거 리 : 길이 15.6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시흥리 안내소 ~ 광치기 해산물촌
- 소개 : 제주 올레에서 가장 먼저 열린 길. 오름과 바다가 이어지는 ‘오름-바당 올레’이며 아담하고 예쁜 시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사시사철 푸른 들을 지나 말미오름과 알오름에 오르면, 성산 일출봉과 우도, 조각보를 펼쳐놓은 듯한 들판과 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음
-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검은 돌담을 두른 밭들이 옹기종기 붙어있는 들의 모습은 색색의 천을 곱게 기워 붙인 한 장의 조각보처럼 아름다우며 종달리 소금밭을 거쳐 시흥리 해안도로를 지나면 성산 일출봉이 다시금 눈앞에 펼쳐지는 수마포 해변에 닿는데 길이 끝나는 광치기 해변의 물빛도 환상적임



<그림 2-4> 제주 올레 2코스

- 개장일시 : 2007년 10월
- 거 리 : 길이 14.95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광치기 해산물촌 ~ 온평혼인지정보센터
- 소개 : 성산리 광치기 해변에서 출발하여 고성, 대수산봉, 혼인지를 지나 온평리 바닷가까지 이어지는 올레 코스
- 물빛 고운 바닷길부터 잔잔한 저수지를 낀 들길, 호젓한 산길까지 색다른 매력의 길들이 이어지며 대두산봉 정상에 서면 시흥부터 광치기 해변까지 아름다운 제주 동부의 풍광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제주 '삼성신화'에 나오는 고·양·부 삼신인이 벽랑국에서 찾아온 세 공주를 맞이한 온평리 바닷가를 걸어 그들의 혼인식을 치렀다는 혼인지도 있음



<그림 2-5> 제주 올레 3코스

- 개장일시 : 2007년 12월
- 거 리 : 길이 20.7km
- 난 이 도 : 상
- 시 간 : 도보 약 6~7시간
- 코 스 : 온평혼인지정보센터 ~ 표선올레안내소
- 소개 : 장장 14km에 걸친 중간산 길의 고즈넉함을 만끽할 수 있는 올레 코스이며 양옆에 늘어선 오래된 제주돌담과 제주에 자생하는 울창한 수목이 운치를 더함
- 나지막하지만 전망이 특 트인 ‘통오름’과 ‘독자봉’ 또한 제주의 오름이 지닌 고유의 멋을 느끼게 해주고 도중에 김영갑 갤러리 두모악에 들러 사진에 담긴 제주의 하늘과 바다, 오름, 바람을 감상할 수 있는 것도 이 올레의 매력. 중산간 길을 지나면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바다목장 길과 물빛 바다와 풀빛 초장이 푸르게 어우러진 낮선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는, 제주에서만 접할 수 있는 바닷올레길



<그림 2-6> 제주 올레 4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3월
- 거 리 : 길이 22.9km
- 난 이 도 : 상
- 시 간 : 도보 약 6~7시간
- 코 스 : 표선올레안내소 ~ 남원포구
- 소개 : 절반은 아름다운 해안, 나머지 절반은 오름과 중산간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중산간의 특별한 풍광을 간직하고 있는 올레길 4코스
- 가마리 해녀올레는 '세계 최초의 전문직 여성'으로 불리는 제주 해녀들의 삶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며, 이곳을 거쳐 '가는개'로 가는 숲길은 제주 올레에 의해 35년 만에 복원되었고, 토산리 망오름과 거슨새미는 중산간의 특별한 풍광을 오롯이 간직하고 있는데, 거슨새미 가는 길은 제주 올레가 새로이 낸 길



<그림 2-7> 제주 올레 5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4월
- 거 리 : 길이 14.7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남원포구 ~ 쇠소깍
- 소개 : 일출봉이 아스라이 보이는 남원포구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 산책로로 꼽히는 큰영 경승지 산책길을 지나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쇠소깍까지 이어지는 길
- 키가 훌쩍 큰 동백나무로 울타리를 두른 마을 풍경과 남원읍과 해병대 93대대의 도움을 받아 사라지고 묻히고 끊어진 바닷올레길 세곳을 복원하여 난대 식물이 울창한 숲을 지나서 바다로 나가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됨



<그림 2-10> 제주 올레 7-1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6월
- 거 리 : 길이 15.1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월드컵경기장 입구 ~ 외돌개 입구
- 소개 : 제주 중산간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호흡하며 걷는 올레로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하여 중산간을 거쳐 외돌개로 내려오는 길
- 위로는 한라산을, 아래로는 제주의 남쪽 바다와 서귀포 전역을 조망할 수 있으며 기암절벽과 천연 난대림에 둘러싸인 중산간의 비경과 제주에서는 보기 드물게 논농사를 짓는 지역을 지나는 논둑길을 따라 걷는 코스



<그림 2-12> 제주 올레 9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8월
- 거 리 : 길이 7.1km
- 난 이 도 : 상
- 시 간 : 도보 약 3~4시간
- 코 스 : 대평포구 ~ 화순바당올레Hits집
- 소개 : 작고 정겨운 대평포구에서 시작해 말이 다니던 '물질'을 따라 걷노라면 절벽 위의 드넓은 초원인 박수기정이 보이며 품질 좋은 제주의 조랑말을 박수기정 위에서 키워 물질로 대평포구까지 배에 실어 원나라로 보냈다고 함
- 박수기정은 보리수나무가 우거진 불레낭 길로 월라봉을 오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광과 제주의 원시 모습을 간직한 안덕계곡은 제주의 감춰진 속살을 제대로 보여주는 비경



<그림 2-13> 제주 올레 10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10월
- 거 리 : 길이 14.8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화순바당올레횃집 ~ 하모제주올레안내소
- 소개 : 화순금모래해변에서 시작해 산방산 옆과 송악산을 지나 대정읍 하모까지 이어지는 해안올레로 마라도와 가파도를 가까이 볼 수 있고, 산방산과 오름군, 영실계곡 뒤로 비단처럼 펼쳐진 한라산의 비경도 감상
- 제주 올레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 소개된 산방산 밑 소금막 항만대의 절경 또한 눈길을 사로잡으며 화순해수욕장은 파도가 너무 세지도 잔잔하지도 않아 맨몸으로 파도타기에 적합하고 용천수 야외수영장까지 있어 여름철 물놀이에 제격



<그림 2-14> 제주 올레 10-1코스

- 개장일시 : 2010년 3월
- 거 리 : 길이 5km
- 난 이 도 : 하
- 시 간 : 도보 약 3시간
- 코 스 : 상동포구 ~ 가파포구
- 소개 : 가파도는 한국의 유인도 중에서 가장 낮은 섬으로 섬의 최고점이 20.5미터에 불과하며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인 한라산과 가장 낮은 섬 가파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
- 낮은 섬 가파도는 느리게 걸어도 한 시간이면 충분할 정도로 작으며 가파도 올레는 걷기 위한 길이 아니며 머물기 위한 길. 길고 긴 제주 섬의 올레를 걸어오느라 수고한 나의 몸과 마음이 하루쯤 편히 쉴 곳. 가파도는 산책의 섬, 휴식의 섬, 안식의 섬



<그림 2-15> 제주 올레 11코스

- 개장일시 : 2008년 11월
- 거 리 : 길이 18km
- 난 이 도 : 상
- 시 간 : 도보 약 5~6시간
- 코 스 : 하모제주올레안내소 ~ 무릉생태학교
- 소개 : 모슬포항(하모체육공원)에서 시작하는 11코스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길로 근대사와 현대사가 녹아 있는 올레코스로 모슬봉은 이 지역 최대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서, 제주올레는 이곳 정상부로 올라가는 '잊혀진 옛길'을 산불감시원의 조언을 얻어 복원
- 신평-무릉간 곳자왈 올레는 제주올레에 의해 처음 공개된 '비밀의 숲'으로 또 다른 감동을 줌



<그림 2-16> 제주 올레 12코스

- 개장일시 : 2009년 3월
- 거 리 : 길이 17.5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5~6시간
- 코 스 : 무릉생태학교 ~ 용수포구
- 소개 : 해안을 따라 서귀포시 전역을 잇고 제주시로 올라가는 첫 올레로 무릉2리부터 용수포구 절부암까지 들과 바다, 오름을 따라 이어지는 아름다운 길
- 신도 앞바다에 거대한 도구리(돌이나 나무를 파서 소나 돼지의 먹이통으로 사용한 넓적한 그릇)들이 바닷물과 해초를 가득 머금은 채 연못처럼 놓인 모습이 신비롭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날, 이 도구리에 파도가 덮치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
- 차귀도를 바라보며 수월봉과 영알길을 지나 당산봉을 넘고나면 ‘생이기정 바당길(새가 많은 절벽이라는 뜻으로 제주올레가 붙인 이름)로 접어들고 눈 밑에서 갈매기가 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될 이 구간은 제주올레에 의해 개척



<그림 2-17> 제주 올레 13코스

- 개장일시 : 2009년 6월
- 거 리 : 길이 14.8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4~5시간
- 코 스 : 용수포구 ~ 저지마을회관
- 소개 : 해안가를 이어오던 제주올레의 지도가 내륙으로 방향을 틀어 숲길 올레의 시작을 알리는 코스
- 바다는 오직 시작점인 용수포구에서만 인사한 후 길은 중산간으로 이어 용수저수지와 숲을 지나 작은 마을 낙천리를 만나고 다시 숲과 오름을 걸쳐 제13공수특전여단 병사들의 도움으로 복원된 총길이 3km에 이르는 7개의 숲길, 밭길, 잣길들과 저지오름의 울창한 숲이 있음



<그림 2-18> 제주 올레 14코스

- 개장일시 : 2009년 9월
- 거 리 : 길이 19.3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6~7시간
- 코 스 : 저지마을회관 ~ 한림항 비양도 도항선 선착장
- 소개 : 고요하고 아늑한 초록의 올레와 시원하게 생동하는 파랑의 올레가 연이어 발길로 이어지고 제주의 농촌 풍경에 마음이 탁 풀어지는 발길을 지나면, 꽃자왈처럼 무성한 숲길이 이어지고, 폭신한 숲길을 벗어나 물이 마른 하천을 따라 가노라면 어느새 걸음을 바다에 이르게 함
- 돌담길, 밭길, 숲길, 하천길, 나무 산책로가 깔린 바닷길, 자잘한 돌이 덮인 바닷길, 고운 모래사장 길, 마을길들이 차례로 나타나 지루할 틈 없이 장장 19.3km의 여정이 이어지고 바다에서는 아름다운 섬 비양도를 내내 눈에 담고 걷는 길, 걸을수록 조금씩 돌아왔는 비양도의 모습이 흥미로운 길



<그림 2-21> 제주 올레 16코스

- 개장일시 : 2010년 3월
- 거 리 : 길이 17.8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6~8시간
- 코 스 : 고내포구 ~ 광령1리사무소
- 소개 : 고내의 작은 포구에서 출발한 길은 해안을 따라 구엄까지 이어지다 일부 해안길은 작은 오솔길 산책로이고, 일부는 바다와 맞닿은 길, 일부는 해안도로를 따라 감
- 넓은 소금빌레가 펼쳐진 구엄포구를 지나면 길은 내륙으로 방향으로 봉긋하게 솟은 수산봉을 향해 마을과 밭길을 지나 수산봉 둘레를 돌면 커다란 곶솔이 지키고 선 수산의 넓은 저수지에 도착. 저수지 독방 위를 가볍게 걸어 마을을 통과하면, 키 큰 나무들이 줄지어 서서 옛 토성, 향파 두리로 이어지고 성을 빠져나가면 아름다운 숲길, 계곡길이 있고 숲을 빠져 나온 길은 이제 마을을 보여주며 종착지 광령에 도착



<그림 2-22> 제주 올레 17코스

- 개장일시 : 2010년 9월
- 거 리 : 길이 18.4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6~8시간
- 코 스 : 광령1리사무소 ~ 산지천 마당
- 소개 : 광령을 떠나 근심이 사라진다는 무수천을 따라 무심히 발걸음을 옮기면, 옛 선비들이 달빛 아래 풍류를 즐겼다는 외도의 월대와 내도의 알작지 해안에 도착. 제주시내와 인접한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즈넉한 풍경을 볼 수 있음
- 외도에서 이어지는 바닷길은 작지(조약돌)들의 재잘거림으로 시작하여 봄이면 청보리가 바람에 일렁이는 청보리 길을 지나고, 여름 밤 더위를 식혀주는 이호테우해변과 한가로운 마을을 건노라면 어느새 발길은 제주의 머리라는 도두봉에 오르고 낮은 오름이지만 정상에서 보는 풍광만큼은 일품이며 심심한 해안도로를 걷고 난 후 만나는 용두암과 용연다리도 볼 거리



<그림 2-23> 제주 올레 18코스

- 개장일시 : 2011년 4월
- 거 리 : 길이 18.8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6~7시간
- 코 스 : 산지천 마당 ~ 조천만세동산
- 소개 : 제주올레의 스물 세번째 길 ‘산지천-조천’올레는 제주시의 도심 한복판, 동문로터리에서부터 시작하여 동문로터리 산지천 마당,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산지천을 따라 길은 인공적으로 조성된 산책로로 이어지지만, 그 아래 살아 있는 산지천에는 물새들이 무리를 지어 날아다님
- 제주항을 지나서는 바다로부터 방향을 틀어 언덕을 오르면 제주 시내권에 박힌 보석 같은 두 오름, 사라봉과 별도봉이 보이고 사라봉은 오르기 어렵지 않은 높이의 오름이지만 제주 시내와 바다, 한라산을 바라보는 전망이 특히 아름다운 곳. 사라봉에서 내려가는 길은 오름의 옆 모습, 역사와 바다가 어우러져 탄성을 자아내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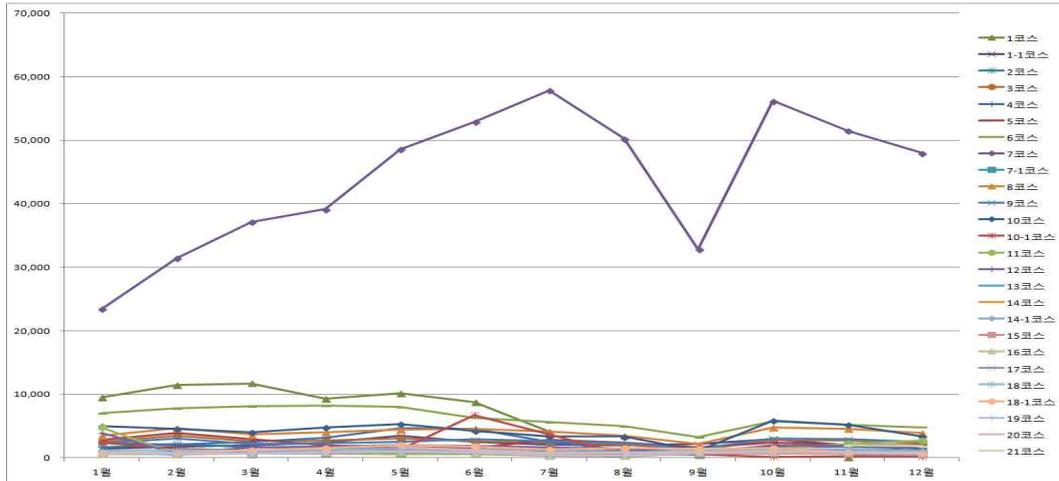


<그림 2-25> 제주 올레 19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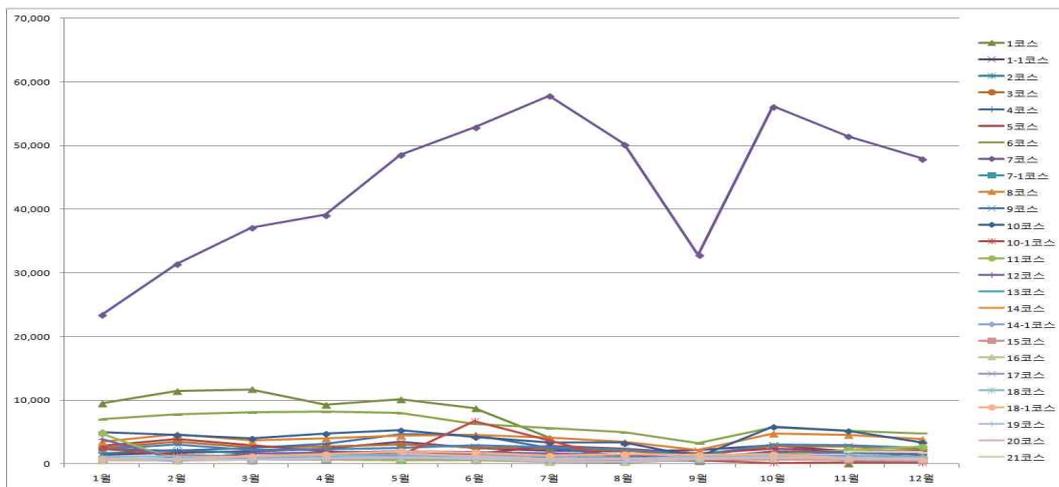
- 개장일시 : 2011년 9월
- 거 리 : 길이 18.8km
- 난 이 도 : 중
- 시 간 : 도보 약 6~8시간
- 코 스 : 조천만세동산 ~ 김녕서포구
- 소개 : 어떤 이는 바다를 좋아하고, 어떤 이는 산에 열광하나 아무리 아름다운 바다나 산도, 아무리 뛰어난 어떤 풍경이라도 너무 오랫동안 그 안에 담겨 있으면 무감각해지기 마련
- 제주시 조천 만세동산에서 시작해 신흥, 함덕, 북촌, 동북을 거쳐 김녕까지 이어지는 제주 올레 19코스는 바다와 오름, 꽃자왈, 마을, 밭 등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들을 지루할 틈 없이 펼쳐 보여주고 있음.
- 밭에서 물빛 고운 바다로, 바다에서 솔향 가득한 숲으로, 숲에서 정겨운 마을로 이어지는 길의 전환은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풍경이 마치 무대 뒤에서 완벽한 분장을 한 채 대기하고 있던 배우처럼 등장하며 길의 드라마를 펼쳐 보임

(2) 탐방객 현황

- 올레의 탐방 집중 시기는 아래 <그림 2-28>, <그림 2-29>와 같이 7코스를 제외하고는 연중 고르게 탐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탐방객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그림 2-28> 2011년도 제주 올레 코스 월별 탐방객 현황



<그림 2-29> 2012년도 제주 올레 코스 월별 탐방객 현황

- 2011년 제주 올레 코스별 방문객 수(<그림 2-28> 참조)와 2012년 제주 올레 코스별 방문객 수(<그림 2-29> 참조)에 따라 2011년 제주올레 총 방문객 1,090,874명과 2012년 제주올레 총 방문객 1,108,522명으로 나타남
- 제주 올레 관광객수 수요예측 결과³⁾ 2011년 제주 올레 추정치 696,772명과 2012년 추정치 943,900명과도 다소 차이를 보임
- 7코스 탐방객은 다른 올레 코스들과는 달리 탐방객 방문인원 및 시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탐방객 방문인원은 크게는 5~6배 차이를, 수요패턴은 7월·10월에 편중되어 나타나고 있음
-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추정한 제주올레 탐방객수는 실측방법에 있어 정밀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올레코스 26코스 중 제7코스 탐방객 숫자가 제일 많은 것을 많은 자료와 논문을 통해 확인하여 적정수요 분석 코스로 선정
- 10코스 탐방객은 26코스 중 방문인원의 변화와 시기가 평균적인 상황을 보이고 있어 변수에 덜 영향을 받게 되어 적정수요 분석 코스로 선정

2) 지리산길(둘레길)

- 위치 : 지리산 둘레 3개 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 21개 읍면에 120여개 마을
- 추진주체 : 사단법인 숲길
- 코스길이 : 274km
- 지리산길(둘레길)은 2011년까지 각종 자원조사와 정비를 통해 지리산 곳곳에 걸쳐 있는 옛길, 고갯길, 숲길, 강변길, 논둑길, 농로길, 마을길 등을 연결하고 있음
- 지리산 둘레길은 산림청의 “지리산 생태역사문화 관찰로 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한국내 첫 장거리 도보길 조성사업으로 사단법인 숲길이

3)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p.84

2007년부터 조사사업을 시작하여, 지리산 둘레 약 274km를 따라 3개 도, 5개 시군 120여개 마을을 이어주는 장거리 도보길임

- 지리산길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도시와 농촌, 자연과 사람을 잇고, 수직의 산행문화를 수평의 문화로 바꾸고, 문화를 느낌의 문화로 바꾸고자 하는 것임
- 코스에 대한 주요 정비원칙은 보전 중심 옛길은 최대한 원형으로 복원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을 적극 활용, 안전중심 차량통행이 많은 아스팔트길,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길, 해발고도가 너무 높은 길 등은 연결을 위한 최소한의 구간을 빼고는 제외, 경관 중심 사계절 내내 변화하는 지리산과 지리산을 아우르며 흐르는 강, 들녘, 마을을 보면서 걸을 수 있음. 자원 중심길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이 잘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
- 2004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지리산길은 2008년 4월 27일 시범구간(남원 산내~함양 휴천) 20.78km를 개방한 것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까지 총 274km가 조성됨

3) 강원도 산소길

- 위치 : 5대권역 동해안, DMZ, 남한강, 북한강, 백두대간의 5대축, 18개 시군
- 추진주체 : 강원도
- 코스길이 : 70개 노선(산책길 475km, 자전거길 1,226km)
- 강원도 산소길은 디엠지(DMZ)와 백두대간, 동해안, 남·북 한강지역의 풍부한 산림·수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걷기 명소인 산소길과 자전거길 3천리임
- 강원도는 2018년까지 3,1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걷기에 편하고 산소내음이 물씬 풍기는 산소길 조성
- 산소길은 5대권역, 70개 노선으로 이뤄지며 기존의 산책로와 폐철로, 숲길, 해안, 하천길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으며 자연의 주제를 담은 이야기가 있는 길

- 산소길 조성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산소길 인정제를 도입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산소길 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선진적 관리시스템을 구축

<표 2-1> 강원 주요 '산소길'

시, 군	길 이름	위치	거리
춘천	실레이야기길	신동면 증리	8km
강릉	솔바람 산소길	남향진~송정	6km
동해	무릉계곡 생태 탐방로	무릉계곡 일대	2.5km
태백	분주령	태백시 창죽동	2.5km
속초	화랑도 순례길	영랑호 주변	8km
삼척	새천년 도로	삼척시 교동	8km

4) 현황과 사례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

- 다양한 코스에 대한 인프라 조성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변지역의 자원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이를 통해 관광기념품이나 상품으로 개발이 적어 코스 조정에 따른 지역에 환원되는 이익이 부족함
-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코스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지역민들을 위한 코스로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휴양·여가·교육적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함
- 도보 코스 주변에 관광자원들을 해설할 수 있는 생태관광가이드나 문화해설사들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단순히 스쳐가는 코스가 아니라 도보코스를 통해 자원을 알고 그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보코스의 경우, 사전정보를 통하여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까지는 개인보다는 단체의 비중이 크므로 사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사이트 개설과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에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관광부서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공사와의 연계를 통해 전국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며, 지역의 단체와 명사들의 계도 활동을 통하여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도보코스는 주변의 다양한 자원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요인에 대하여 제한을 줌으로써 지속가능하도록 할 수 있음
- 사전예약이나 관광객들의 참여인원 제한, 코스의 휴식년제, 코스 주변 자원의 가치해설, 사전 자원 보호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해야 함
- 올레길 및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소길을 중심으로 국내코스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안내를 위한 다국어의 브러셔와 표지판의 제작은 미흡한 편임
- 외국인들을 위한 안내소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전국의 도보코스마다 설치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다국어안내 지도 혹은 표지판에 다국어 표기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함
- 도보여행지는 기존의 경관보전과 연계된 자원활용을 통해 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관광객들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도보코스 조성을 하면서 일부코스는 산책용 데크 또는 임도를 새로 조성함으로써 자연을 훼손하고 인공화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 또한 주변의 자원에만 초점을 맞추어 위험하거나 도보로 다니기에 너무 높거나 긴 코스로 조성이 되는 경우도 있음.
- 현재의 도보코스 명칭들은 지역명과 함께 테마를 나타내는 명칭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 많은데, 향후 한국을 방문하는 도보 관광객들의 증가시 다양한 국내의 도보 여행코스들의 명칭을 쉽게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도 많을 뿐더러 영문으로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국제적인 홍보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Ⅲ. 탐방수용력 모형의 국내·외 사례연구⁴⁾

1. 국내연구 사례

1) 국립공원 수용력 연구 사례

- 우리나라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수용력 추정에 관한 연구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의하여 3차(2000, 2004, 2005)에 걸쳐 수행되었음
- 1차 연구에서는 물리적 수용력을 적용하여 북한산, 설악산, 내장산, 가야산, 태안해안,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총 6개 국립공원에 대하여 수용력을 추정함
- 추정방법은 탐방로의 환경피해도(등급)와 통행패턴 및 통행량 조사를 통하여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관계를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탐방로 노폭을 기준으로 피해등급이 없는 수준에서의 1일 구간 최대통행량과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의 수용력을 파악함
- 주요 연구결과⁵⁾를 살펴보면,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노폭을 1.8m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용능력은 하루 24,139명, 연간 1,448,141명이 고, 1시간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하루 5,440명 연간 326,359명으로 추정됨
- 설악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노폭을 1.8m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하루 32,818명, 연간 1,656,303명으로 추정됨
- 내장산국립공원의 경우, 탐방로 노폭을 1.8m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

4) 제주발전연구원(2008),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방안 수용력 모형개발 및 수용력 산정, pp.169~182. 자료 재구성.

5) 연구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작성된 결과치로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며 연구의 전제조건이나 기준이 일반화시키기에 무리가 있는 결과임

용력은 하루 7,416명, 연간 140,110명으로 추정되었으며, 1시간 구간 최대 통행량은 하루 1,849명, 연간 34,928명으로 추정됨

- 가야산국립공원의 수용력 추정결과, 탐방로 노폭을 1.8m 기준으로 할 경우, 1일 구간 최대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하루 12,162명, 연간 474,910명이고, 1시간 구간 최대 통행량을 이용하면, 환경피해도 5~6등급의 기준에서 추정된 최대 수용력은 하루 3,707명 연간 144,766명으로 추정됨
-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Ⅱ(2004)에서는 6개 산악형 국립공원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자 설문조사, 전국민 조사, 관리자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물리·생태적 수용력, 사회·심리적 수용력, 관리적 수용력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연구대상지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도출함
-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소백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겨울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 2,996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 78명/(일·km)으로 나타났음. 속리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가을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 21,963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 363명/(일·km)으로 나타남
- 오대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가을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 10,397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 309명/(일·km)으로 나타났음. 월악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가을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 14,272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 275명/(일·km)으로 나타남
- 주왕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가을조사로 밝혀진 적정수용력 23,642명/일, 단위구간별 적정수용력 622명/(일·km)으로 나타났음. 치악산국립공원의 적정수용력은 가을조사로 밝혀진 7,135명/일, 177명/(일·km)으로 나타남
- 국립공원별 특성에 따른 공원관리방안 연구Ⅲ(2005)에서는 4개의 산악형 국립공원과 1개의 해안형 국립공원의 수용력을 추정함
- 환경생태수용력 등급과 관리지수 등급을 이용하여 초과시설 수용력을 구역별로 추정하였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필요성과 기준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의 표준편차를 이용해 수용력을 추정함.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리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아래봉·성삼재·백무동 등 총 16개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화엄사·쌍계사 구역은 '분산'으로 추정됨
- 그리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산덕임도~부운치갈림길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계룡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상신·동학사·수통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갑사구역은 '분산'으로 추정됨
- 그리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동학사~남매탐·갑사~연천봉고개~관음봉고개~은선폭포~동학사~매표소·지석골~갯바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덕유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설천, 적상산·삼공·월성, 송계사·장수, 함양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안성구역은 '분산'으로 추정됨
- 그리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안성 매표소~동엽령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월출산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산성치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노적봉·경포대 구역은 '분산'으로, 문필봉 구역은 '적정'으로 추정됨
- 그리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금릉경포대~바람재·경포대삼거리~종주능선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분적인 일시통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구역별 관리방안을 살펴보면 봉화·부안호·내소사·상서면 구역은 '유도'로 추정되었으며, 격포·진서면 구역은 '분산'으로, 갑남사·변산면 구역은 '적정'으로 추정됨
- 그리고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을 살펴보면, 사자동~우리동·바드재~용각봉삼거리·개암사~우금암·가마소~내소사~사무소·사자동~봉래곡삼거리~재백이고개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부분적 통제

<표 3-1> 지리산국립공원 구역별 환경생태수용력 관리지수 초과시설 수용력 관리목표

구역명		환경생태수용력 등급					관리지수 등급					초과시설 수용력	관리 목표	
		1	2	3	4	5	1	2	3	4	5			
바래봉	km ²	16.95	14.58	2.37	-	-	-	-	-	-	0.09	16.86	1,411	유도
	%	100	86.21	13.78	0.01	-	-	-	-	-	0.53	99.47		
유선대	km ²	28.48	25.67	2.71	0.10	-	-	-	-	0.01	0.93	27.54	305	유도
	%	100	90.12	9.43	0.36	-	-	-	-	0.02	3.24	96.74		
성삼재	km ²	45.62	16.62	15.94	8.70	4.23	0.13	-	-	2.75	16.5	26.52	5,224	유도
	%	100	36.83	34.72	18.95	9.21	0.28	-	-	6.00	35.61	58.39		
화엄사*	km ²	26.85	8.36	12.01	4.52	1.91	0.05	0.03	0.29	1.67	9.67	15.19	-2,599	분산
	%	100	30.84	45.28	16.65	7.05	0.17	0.12	1.05	6.17	35.65	57.01		
피아골	km ²	48.93	16.41	20.49	8.39	3.63	0.01	-	0.09	1.65	17.38	29.81	951	유도
	%	100	33.45	42.01	17.12	7.40	0.02	-	0.18	3.37	35.44	61.01		
대성리	km ²	29.03	7.62	17.29	3.80	0.32	-	-	-	0.12	11.17	17.74	4,471	유도
	%	100	25.90	60.08	12.91	1.10	-	-	-	0.41	37.99	61.06		
반야봉	km ²	14.86	0.90	9.75	4.01	0.20	-	-	0.02	0.36	8.43	6.05	3,216	유도
	%	100	5.92	64.83	27.92	1.33	-	-	0.11	2.33	57.92	39.64		
형제봉	km ²	18.84	7.15	9.38	2.18	0.13	-	-	-	0.10	4.50	13.34	2,755	유도
	%	100	38.23	49.73	11.36	0.68	-	-	-	0.54	28.12	71.34		
뱀사골	km ²	32.52	17.53	12.91	1.85	0.23	-	-	0.03	0.29	6.07	26.13	422	유도
	%	100	54.34	39.34	5.62	0.70	-	-	0.09	0.88	18.49	80.55		
쑥밭재	km ²	14.04	11.00	3.01	0.03	-	-	-	-	-	0.35	13.69	0	유도
	%	100	78.5	21.21	0.23	-	-	-	-	-	2.44	97.56		
천왕봉	km ²	18.60	3.72	7.59	6.42	0.87	-	-	-	0.72	10.47	7.41	2,137	유도
	%	100	19.61	41.98	33.83	4.59	-	-	-	3.78	55.23	40.99		
백무동	km ²	23.53	8.39	12.14	2.97	0.03	-	-	-	0.22	8.52	14.79	10,522	유도
	%	100	35.12	52.33	12.43	0.13	-	-	-	0.91	35.65	63.44		
덕평봉	km ²	13.04	2.78	8.01	2.23	0.02	-	-	-	0.02	5.81	7.21	2,644	유도
	%	100	20.85	62.39	16.60	0.16	-	-	-	0.14	43.15	56.71		
쌍계사*	km ²	42.53	29.28	12.83	0.42	-	-	-	-	0.04	2.77	39.72	-295	분산
	%	100	68.93	30.09	0.99	-	-	-	-	0.10	6.50	93.40		
세 석	km ²	17.42	8.62	7.99	0.81	-	-	-	-	-	3.35	14.07	3,560	유도
	%	100	50.55	44.91	4.54	-	-	-	-	-	20.05	79.95		
중산리	km ²	18.19	4.24	10.01	3.65	0.29	-	-	-	0.42	8.08	9.69	912	유도
	%	100	24.48	54.29	19.67	1.56	-	-	-	2.27	43.59	54.14		
내원리	km ²	28.03	13.16	14.22	0.64	0.01	-	-	0.01	0.29	3.38	24.35	107	유도
	%	100	46.44	51.28	2.24	0.05	-	-	0.05	1.02	11.94	86.99		
유 평	km ²	34.32	15.57	16.35	1.97	0.43	-	0.04	0.22	0.65	6.59	26.82	2,324	유도
	%	100	45.07	47.98	5.70	1.25	-	0.12	0.65	1.89	19.07	78.27		
합 계	km ²	471.78	211.6	195	52.69	12.3	0.19	0.07	0.66	9.31	124.8	336.9	38,067	

* 화엄사, 쌍계사 구역은 분산을 유도하거나 시설물을 추가한 유도가 필요한 구역이다.

<표 3-2> 지리산국립공원 구간별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 및 관리방안 분석

구간명	계절별 환경생태보전 필요성 ¹⁾					Std. ³⁾	초과시설 수용력 ⁴⁾ (활동·체류)	관리방안 ⁵⁾
	봄	여름	가을	겨울	기준 ²⁾			
노고단-천왕봉	375.8	363.1	363.3	370.5	358.9	6.1	7662	자연휴식년제
대성-세석대피소	417.3	402.8	412.5	418.1	405.6	7.0	2931	봄, 가을, 겨울
거림-1400고지	417.3	412.3	418.9	429.1	417.7	7.1	1618	가을, 겨울
칼바위-장터목대피소	353.5	352.9	361.3	380.1	363.3	12.7	1321	겨울
법계교-천왕봉	418.4	398.5	410.8	421.4	411.3	10.2	3500	봄, 겨울
법계교-법계사	409.2	395.3	408.6	417.0	406.4	9.0	1706	봄, 가을, 겨울
유평매표소-천왕봉	365.6	352.5	359.7	364.4	351.3	5.9	1442	자연휴식년제
새재-새재삼거리	428.6	416.2	428.2	427.8	416.9	6.0	882	봄, 가을, 겨울
추성-천왕봉	335.1	322.9	323.3	333.3	319.9	6.5	2137	자연휴식년제
백무동-장터목대피소	388.9	377.2	373.1	397.4	376.4	11.1	1706	봄, 여름, 겨울
백무동-세석대피소	409.7	399.7	410.2	405.3	399.9	4.5	1316	봄, 가을, 겨울
의신-벽소령대피소	435.4	420.4	435.6	439.9	433.7	8.5	2000	봄, 가을, 겨울
음정-벽소령대피소	449.9	434.5	446.6	451.7	445.6	7.7	1971	봄, 가을, 겨울
청학동-세석갈림길	468.0	461.7	465.1	473.2	466.1	4.9	2265	봄, 겨울
쌍계사-삼신봉	459.0	446.9	458.1	465.1	458.2	7.6	-1654	봄, 겨울
칠불사-토끼봉	449.6	435.0	450.2	452.0	446.7	7.9	1441	봄, 가을, 겨울
반선-화개재	361.7	350.1	358.8	365.8	358.2	6.7	3322	봄, 가을, 겨울
쟁기소-반야봉	315.7	305.4	315.0	327.1	316.8	8.9	2059	겨울
정령치-운봉종축장	483.3	476.5	482.2	490.7	482.2	5.8	2964	봄, 가을, 겨울
정령치-만복대	437.8	424.5	425.5	451.1	426.6	12.5	588	봄, 겨울
삼곡교-구룡폭포	493.5	482.1	495.5	497.6	494.3	6.9	-2673	가을, 겨울
산덕임도-부운치갈림길	500.0	500.0	500.0	500.0	500.0	0.0	941	개방
만복대-성삼재	467.7	457.0	465.6	467.5	459.5	5.1	1559	봄, 가을, 겨울
성삼재휴게소-노고단	388.1	329.2	338.4	348.4	334.2	7.8	-1207	봄, 가을, 겨울
노루목삼거리-반야봉	211.2	188.8	209.6	217.6	211.2	12.5	294	봄, 겨울
직전마을-임결령삼거리	285.3	281.2	277.7	290.2	281.4	5.4	-663	봄, 겨울
화엄사-무넝기	283.0	279.8	268.8	285.9	274.7	7.5	-3508	봄, 여름, 겨울
화엄사입구-연기암입구	282.2	283.3	278.2	297.1	289.1	8.2	1118	겨울
당동-당동고개	430.2	425.6	431.4	434.9	430.2	3.8	1029	봄, 가을, 겨울

- 1) 계절별 환경생태보전필요성 = (환경생태보전필요성 1등급 면적비율×1) + (환경생태보전필요성 2등급 면적비율×2) + (환경생태보전필요성 3등급 면적비율×3) + (환경생태보전필요성 4등급 면적비율×4) + (환경생태보전필요성 5등급 면적비율×5)
- 2) 기준 환경생태보전필요성 : 계절별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은 환경생태보전필요성
- 3) 봄, 여름, 가을, 겨울 환경생태보전필요성의 표준편차
- 4) 초과시설수용력 : 활동(탐방로, 야영장, 대피소)시설수용력 - 체류(주차장, 숙박시설)시설 수용력
- 5) 관리방안 : 기준 환경생태보전필요성보다 계절별 환경생태보전필요성이 클 경우 해당하는 계절을 일시통제, 4계절 모두 큰 경우에는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하도록 함

2) 휴양지역 수용력 국내연구 사례

- 최근의 산업경제수준 향상, 가처분소득 증가, 여가시간 증가 등의 요인으로 자연공원을 비롯한 야외 휴양지역 방문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관리적 측면에서 방지하기 위한 수용력 관련 연구가 다수 진행됨
- 또한 자연의 엄정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이 양립되기 위해 관련 학계(관광학, 임학, 조경학, 건축학, 생태학 등)에서는 수용력의 인접 개념인 혼잡-만족도의 관계, 관광자의 선호도 및 행태 특성을 조사하여 특정 자원의 적정 수용력을 추정하는 시도가 다수 진행됨
- 박봉우(1984)는 임학을 배경으로 하여 산악형 국립공원의 수용력 개념은 관리목표, 생태적 수용력, 사회적 수용력의 총합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탐방객 경험의 질과 생태적 환경의 질적 저하 없이 산악형 국립공원의 특성을 유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면서, 보다 중요한 관건은 명확한 관리목표 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조현길(1989)은 지리산국립공원 탐방객의 야영 당시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심리적 수용력을 추정할 목적으로 현지에서 아침과 저녁시간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배부·회수하였음
- 1인당 야영면적이 증가할수록 혼잡도는 당연히 감소하고 있는데, 간혹 변동을 보이는 것은 대상지의 야영객 중 단체야영객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시끄러움이 이용집단의 크기가 작거나 조용한 야영을 원하는 야영객들로 하여금 혼잡도에 대한 반응을 크게 좌우한 것으로 판단함
- 지리산국립공원 화엄사지구를 대상으로 하여 자원의 지력 저하를 막는 동시에 탐방객 경험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수용력을 추정하였는데, 생태적 수용력의 경우 $100\text{m}^2/\text{인}$, 심리적 수용력의 경우 $38.3\text{m}^2/\text{인}$ 으로 추정하였음
- 또한 권영선 등(1988)은 치악산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의 만족도가 최대인 수용력을 $75\text{m}^2/\text{인}$ 으로, 엄봉훈(1992)은 혼잡지각을 기준으로 경주보문단지내의 공원잔디공간의 수용력을 $60\text{m}^2/\text{인}$ 이하로 추정하였음

- 한범수(1988)에 따르면, 3가지 가설을 제기하여 검증한 바, 첫째, 혼잡지각의 정도가 클수록 탐방 만족도는 감소한다는 가설에 대하여 예상 및 실제 혼잡지각의 정도가 '혼잡하다', '아주 혼잡하다'고 응답한 사람의 만족도가 '한적하다' 또는 '아주 한적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상관관계 분석결과도 두 변수 간에 음(-)의 방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수준은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이 가설은 상황조건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외국의 선행적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 있음. 둘째, 실제 혼잡지각의 정도는 탐방객행동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상혼잡지각보다 낮다는 것인데, k^2 검증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고 있어 이 가설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며, 셋째, 예상혼잡지각의 정도가 높을수록 탐방객은 타 지역으로 이동을 전환한다는 '이용자회피' 가설로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했음
- 유경주(1992)는 탐방객의 개인적 변수(특유한 선호지각밀도)와 현지의 상황에 따른 실제 혼잡지각 수준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지만, 탐방객들은 휴양지가 혼잡하다고 하여 그곳을 회피, 다른 대체지역으로 이동하기보다는 또 다른 극복책으로서 자신의 선호수준이나 기대감을 현지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밝힘
- 공영호(1987)는 계룡산국립공원에 대한 휴양자원의 질 및 탐방객 상호간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의 수용력을 고찰하였음. 계룡산 탐방객들의 19.7%는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하고 있었으며, 27.9%는 한적하다고 느끼고 있었음. 혼잡의 정도는 이용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남매탐지역이 가장 혼잡하였고, 전망대지역이 가장 한적한 것으로 나타남. 혼잡의 정도는 혼잡지표(crowding index: CI)로서 나타낼 수 있는데 각 지역별 혼잡지표 수는 남매탐지역이 32.3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은석폭포 지역이 20.0, 동학사지역이 13.2, 갑사지역이 5.3로 나타났으며, 전망대는 0으로 나타남. 계룡산국립공원 전체의 혼잡지표 수는 19.7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계룡산 탐방객의 1/4정도는 혼잡함을 느

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탐방로 상에서 마주오는 다른 단체와 마주쳤을 때, 응답자의 50.9%는 '반갑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40.5%는 '그저 그렇다'고 답하였고, 8.6%만이 방해가 된다고 하였음. 다른 단체와 조우한 횟수에 따라서는 조우회수가 늘어날수록 반갑다는 비율이 줄어들고, 방해가 된다는 비율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나 현저하지는 못함. 조우회수와 만족도를 비교해 보면 조우회수가 늘어남에 따른 만족도의 변화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안성로(1989)는 국립공원 탐방객의 연중 변동의 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어,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속리산, 설악산국립공원 탐방객의 혼잡지각을 설문문을 통해 조사하였음. 전체 국립공원의 혼잡도가 72.2%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국립공원과는 개념이 다소 상이하지만 국립수목원에서는 2004년 1일 탐방객이 최대 2만 명까지 급증하자, 광릉숲 보존대책(국립수목원 자체 예규에 휴원 및 예약제:1일 5,000명)을 마련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음. 현재는 일요일, 월요일, 공휴일(국경일)에 휴원하며 사전 예약(인터넷 및 일부 전화예약)에 한해 화~금요일은 5,000명, 토요일은 3,000명을 입장시키고 있음. 또한 토요일 주차난 해소 및 인근지역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토요일에는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음
- 이상과 같이 수용력 개념이 현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이를 측정하고 계량화 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은 ①허용 가능한 혼잡도의 수준 (acceptable levels of crowding)이 지역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②특별한 형태의 개발이 타 지역의 개발보다 더 밀집되는 것이 불가피하며, ③물리적·환경적 수용력은 관리기술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수용력 측정을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수용력 추정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한정된 자연 자원 및 생태계 보호와 양질의 탐방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관리목표 설정이 가장 중요함

2. 국외연구 사례

1) 야외휴양지역의 수용력 연구사례

- 1930년대 중반 Sumner(1936)에 의해 제안되고, Wagar(1964), Lucas(1964)의 연구 이후 야외휴양지역의 수용력 연구가 가속화 되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이들 중 휴양자원에 수용력을 적용시키는데 중요한 이론을 제시한 몇몇 연구자들의 수용력 연구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야외휴양자원 관리부문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수용력개념은 1930년 중반 Sumner(1936)에 의해 야외휴양 지역에 적용되었으나 사회적 수용력 측면보다는 물리적·생태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이었음. 야생동물 혹은 자연생태계 관리개념으로 시작된 수용력 개념은 “모든 휴양자원은 그들 고유의 수용력을 가지고 있다”고 Wagar가 주장하면서 야외휴양자원 관리에 적용되기 시작했음
- 1960년대 초 Wagar(1964)와 Lucas(1964)에 의해 야외휴양지역에 수용력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되었음. Wagar(1964)는 물리적·생태적·사회적 측면을 포함한 ‘환경적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수용력 이론을 적용시켰음. 또한 야외휴양지역의 ‘탐방객수의 증가’가 환경과 탐방경험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면서 혼잡도가 높으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였으나, 1968년 이전의 수용력에 관한 개념(혼잡과 만족도의 상관)을 수정하면서 수용력은 탐방활동 종류의 다양성과 관리활동에 따라 달라지며, 탐방경험의 질과 이용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관리활동 즉, 탐방객 profile 분석, 분산 및 규제 방안, 교육프로그램, 시설물 관리를 중요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Lucas(1964)는 야외휴양지역을 이용하는 다양한 탐방객의 탐방활동 종류에 따라 ‘혼잡지각’을 수용력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는데, 수용력의 범위는 탐방객들의 ‘가치기준’에 의존한다고 주장함
- Alldredge(1973)는 야외휴양지역에 수용력을 적용시킬 수 있는 유형을 자

연자원, 탐방객, 시설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야외휴양지역의 수용력을 파악하기 위해 혼잡모형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경제학적인 시각에서 혼잡모형을 조명하고 있으며, 탐방집중이 가중될수록 활동으로 인한 만족감이 감소된다고 주장하며 원생지와 개발된 야영지에 대한 적절한 밀도수준을 제시함

- Heberlein(1977)은 생태적·물리적·사회적·시설적 측면에서 수용력을 제안하면서 물리적 측면은 야외휴양자원 관리에서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음. Verburg(1974)는 야외휴양지역에 수용력 적용은 관리목표, 대상지의 적응성, 탐방객 특성과 경험, 정책적인 수단 등을 포함한 다양한 외부요인들 사이의 역학적 평형의 유동수준으로 간주해야 된다고 주장함
- Fisher & Krutilla(1972)는 야외휴양자원 관리를 위한 수용력 개념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했음. 이들은 주어진 물리적 상황 하에서 지속적인 생산이라는 용량의 개념을 수용력에 적용시켰음
- 또한 경제학적 의미에서 과밀의 외부효과 등을 통한 야외휴양 경험의 질 저하가 근본적으로 생태적 수용력의 한계 이전에 허용 가능한 이용수준을 초과할 수 있고 또 역으로 생태계가 강하게 보존되어야 할 지역에서 심각한 혼잡비용이 느껴지기 전에 탐방규제가 선행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이 2가지 개념을 적절히 만족시킬 수 있는 적정 탐방수준의 선정을 위한 적정 휴양 수용력(optimal recreation capacity)을 제시했음
- 초기 사회적 수용력 연구는 밀도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개인적, 환경적 요인의 조사에 대해 탐방객 수의 영향을 강조해 왔음. 이 연구들은 탐방객들의 다양한 이용수준으로 인해 탐방객들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탐방객들은 자연자원 지역의 탐방이용으로 야기되는 여러 가지 내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Stankey(1974)는 혼잡지각과 탐방객 만족을 강조하며 탐방경험은 탐방수준과 관련되어 있지만 탐방객의 탐방경험은 탐방객 수보다는 환경영향지각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음

- Schreyer 등(1984)에 의하면, 탐방수준이 증가하면 탐방객 사이의 갈등도 증가하게 됨. 또한 갈등(conflict)은 탐방객들이 다른 탐방객의 행동으로 인해 자신의 목적이 간섭을 받을 때 나타나며 갈등의 정도는 방해받는 목적의 중요성과 행동규범이 서로 달리 나타날 때 발생함
- Graefe 등(1984)은 수용력에 관한 모든 문제 즉, 물리적·생태적·사회적 환경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문헌 검토를 통해 수용력에 관한 안내지침을 제시함
- Shelby and Heberlein(1984)은 Graefe 등(1984)의 연구를 뒷받침하는 수용력모형을 개발함. 이들은 수용력의 관리변수를 중요하게 부각시키면서, 관리변수는 탐방객들의 탐방이용 형태와 환경영향지각으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며 사람들의 '접촉회수'를 평가기준으로 제시함. 이들 연구는 Graefe 등(1984)의 개념적인 재검토와 종합화의 원시적인 단계가 아니라 수용력 결정에 필요한 경험적인 자료를 제공함
- 그러나 Stankey 등(1985)은 Graefe 등의 이론을 반박했음. 이들은 Graefe 등이 제시한 수용력 개념은 다소 협의적이라 수용력의 연구방법을 다시 검토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이들은 수용력 문제에 있어서 탐방경험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접촉회수가 중요한 영향변수라기 보다는 '조우횟수'가 중요하며 '허용할 수 있는 변화의 한계(limit of acceptable change)' 개념을 제시함

2) 국립공원 및 특정지역 수용력 연구사례⁶⁾

(1) Alcatraz Island



- Alcatraz Island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golden gate national recreation area에 위치한 역사적인 장소임. 미국 국립공원의 한 부분인 이 지역에는 연간 수백만 명에 이르는 탐방객이 찾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Alcatraz Island 관리자들은 적정 수용력 관리를 위해 탐방객 설문조사를 통해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한 후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통해 적정 이용수준을 결정하였음
- 연구결과 탐방객의 평균 체류시간은 2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한 지역에 머무르는 탐방객의 크기는 25명을 가장 선호하였고, 44명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컴퓨터 모델링을 통한 적정 수용력은 1일 4,800명으로 나타남(표 3-3)

<표 3-3> Alcatraz Island 적정수용력 추정 결과

평가기준	1일 적정 수용력
선호 (한 지역에 한번에 25명)	2,560
허용 가능 (44 PAOT)	4,800
운영 단계 (44 PAOT)	4,800

6) 제주발전연구원(2008),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방안 수용력 모형개발 및 수용력 산정, pp. 184~200. 자료 재구성.

(2) Arches National Park



- 미국 Utah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9,500ha의 면적에 약 2,000여개의 돌 아치가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는 국립공원임. 탐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833,051명(2005년 대비 6.5% 증가)이 탐방함
- VERP를 Arches national park에 적용하기 위한 pilot 연구로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탐방객 경험을 결정짓는 지표와 기준을 설정함
- 그 결과, 수적인 수용력의 결정보다는 자연자원의 훼손 방지와 탐방객 만족 극대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관리대안을 제시함
 - 탐방객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많은 정보 제공
 - 탐방객이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하도록 유도
 - 탐방객이 정해진 주차 장소에만 주차하도록 유도
 - 훼손에 민감한 지역에 도달하기 전 사전 지식을 습득하게 함
 - 정해진 탐방로를 이탈하여 들어갈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함
 - 더 많은 공원 관리인을 투입하여 규정을 지키도록 유도
 - 더 많은 공원 관리인을 투입하여 탐방객을 교육하고 도와주도록 함

(3) Yosemite National Park



- 미국 요세미티국립공원에서는 적정 수용력 관리를 위해 2004년부터 VERP 모델을 이용,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아래와 같이 8개의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선정된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은 아래(표 3-4)와 같음

<표 3-4> 영향지표(indicator) 및 평가기준(standard)

영향지표	평가기준
수질	샘플링 기간 당 각 구획(segment) 대장균, 영양분(TN,TP), 석유계 탄화수소에 대한 Anti-degradation
하안(河岸) 침식	2006년 조사를 기준으로 하안이 유수로 인해 깎이거나 무너지는 정도가 더 늘어나는 것 금지
음식물에 대한 야생동식물의 노출	지정된 캠프장과 주차 구역에서 음식 보관 규정에 대한 준수가 95% 혹은 그 이상인지 여부
비공식 탐방로의 범위 및 상황	2004~2006년과 비교했을 때 비공식 탐방로의 밀도의 순증가 여부
자연보호구역에서 다른 일행들과 마주치는 빈도	비공식 탐방로 지역: 4시간 당 한번 꼴, 80% of the time 공식 탐방로 지역: 시간당 한번 꼴, 80% of the time
방문자 수	방문자 수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주차장 이용가능성	주차장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음
고고학 자원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	방문자들의 위협 혹은 소란에 의한 유적지의 안정 혹은 상태 악화 금지

IV. 올레길 탐방객 적정수요 분석⁷⁾

1. 수용력 개념 및 모델

1) 수용력 개념

- 수용력(carrying capacity)이란 원래 방목학에서 나온 개념으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이 수용할 수 있는 동물의 개체수를 의미하는 개체군성장 이론에서 시작됨(신원섭, 1999). 즉 생태계에 있어서 이 개념은 일정 생태계 또는 서식처의 회복 불가능한 훼손 없이 지탱될 수 있는 특정 종의 최대 개체군 밀도(maximum population density)로 정의됨(박석희, 1995)
-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정의한 수용력 개념을 종합하면, 개념정립의 범위와 적용대상은 다양하게 세분되었으나 그 기본개념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휴양지역에서 논의할 수 있는 수용력 개념은 광범위하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음(김사현, 2003)
- 첫째, 물리적 수용력(physical carrying capacity) 개념으로 인공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최적 공간규모 즉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도시 및 지역계획상의 옥내 공간 규모설정에 많이 적용되며 장소(건물)내에서 특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탐방객의 최대허용수준을 의미함
- 둘째, 생태적 수용력(ecological carrying capacity) 개념으로 특정 지역에서 환경의 질이 저하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최대개체군 밀도로서, 식생·토양·수자원·야생동물 등이 심각하게 훼손 또는 감소되어 자기회복능력을 상실하지 않는 정도의 탐방수준을 의미함
- 셋째, 사회적 수용력(social carrying capacity) 개념으로 보유하고 있는 탐방경험의 질을 제공하는 동안에 만족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지속시킬 수 있는 탐방수준, 즉 탐방객 만족이 극대화되는 탐방밀도, 탐방객이 타

7) 제주발전연구원(2008),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방안 수용력 모형개발 및 수용력 산정, pp.203~236. 자료 재구성.

대체지역으로 회피하지 않을 정도의 탐방수준을 의미함

- 실증연구로, Graefe 등(1984)은 수용력 결정을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에서 '사회적 영향 페라미터(social impact parameter)'라는 용어를 수용력 연구에 처음으로 등장시킴. 이 개념은 심리학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과 사회규범(social norms)을 도입하여 혼잡지각으로 인한 갈등과 그 영향을 다루었으며, 좀 더 나아가 이용(use)과 영향(impact)의 관계를 놓고 한 탐방객의 탐방행위나 존재가 다른 탐방객에게 미치는 행동조정 (behavioral adjustment) 내지는 허용·인내심(tolerance) 등을 다루었음.
- 본 연구에서는 물리(시설)적·생태적 수용력을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올레길이 일정한 지역적 공간이 존재하지도 않고 입·출구가 다양하여 정확한 탐방객 숫자를 확인하기 어려움으로 인해 각각의 평가인자가 부정확한 관계로 인해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 방법을 사용하였음.

2)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 방법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탐방객의 휴양 경험 질에 관점을 둔 수용력 측정 수단의 하나로, 휴양 활동에서 탐방객이 인지하는 일정수준의 질을 유지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적절한 이용밀도를 의미함
-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주로 다른 탐방객 혹은 탐방객 집단과 조우하는 빈도나 혼잡(congestion) 등과 같은 탐방밀도와 관련된 측정인자와 탐방객의 만족도와는 수리적 관계를 규명하여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임
- 본 과업에서는 탐방 코스와 이용시간별로 현재 수준에서 탐방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탐방객 이용수준의 비율(%)을 분석하여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산정하였으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1)~(3)과 같음
- 식(1)은 과업대상지인 올레길 i코스에서의 수용력이며, 식(2)는 t시간대에서의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의미함. 식(3)은 i코스과 t시간대를 동시에 결합한 수용력을 의미함

$$V_s^* = \sum_{i=1}^n V_i(1 + CV_i) \quad (1)$$

여기서 V_i 는 i 코스 탐방객수

CV_i 는 i 코스에서 탐방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탐방객 조절 비율(%)

$$V_T^* = \sum_{i=1}^m V_i(1 + CV_i) \quad (2)$$

여기서 V_t 는 t 시간대의 탐방객수

CV_t 는 t 시간대에서 탐방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탐방객 조절 비율(%)

$$V_{ST}^* = \sum_{i=1}^n \sum_{t=1}^m V_i^t(1 + CV_i^t) \quad (3)$$

여기서 V_i^t 는 i 코스의 t 시간대의 탐방객수

CV_i^t 는 i 코스의 t 시간대에서 탐방객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탐방객 조절 비율(%)

2. 올레길 탐방 만족도 분석

1) 올레길 혼잡도 예상 및 실제 혼잡도

- 올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방식에 의한 설문 조사를 2013년 6월 22일~23일 양일간 7코스와 10코스 올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 총 268명을 대상으로 조사함
- 설문조사 올레코스 선정은 26코스 중 제일 많은 탐방객이 방문하는 7코스와 평균치 수준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10코스를 선택하였음
- 설문조사는 2개의 장소로 나누어 조사를 하였는데, 제7, 10코스 중간지점과 종착지점에서 탐방객을 대상으로 각각 150부씩 설문을 배포하였으며 이 가운데 부실한 설문지 32부를 제외하고 268부의 설문지를 최종 유효 표본으로 선정하였음

- 탐방객들은 지금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을 탐방하기 전에 얼마나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는지 하는 항목에서 '혼잡할 것으로 예상'한 탐방객은 22.3%이고,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탐방객은 41.8%이며, 보통정도의 혼잡성을 예상한 탐방객은 35.8%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 올레길 혼잡도 예상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10.1	31.7	35.8	20.1	2.2	2.73
코스	7코스	143	9.1	31.5	35.0	22.4	2.1	2.77
	10코스	125	11.2	32.0	36.8	17.6	2.4	2.68
성별	남성	145	11.0	29.7	37.9	18.6	2.8	2.72
	여성	123	8.9	34.1	33.3	22.0	1.6	2.73
연령	10대	19	10.5	21.1	52.6	10.5	5.3	2.79
	20대	33	6.1	42.4	21.2	27.3	3.0	2.79
	30대	52	13.5	30.8	38.5	17.3		2.60
	40대	63	6.3	33.3	38.1	20.6	1.6	2.78
	50대	69	10.1	26.1	39.1	21.7	2.9	2.81
	60대 이상	32	15.6	37.5	25.0	18.8	3.1	2.56

질문) 올레길을 탐방하기 전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 탐방객들은 지금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이 얼마나 혼잡했는지 하는 항목에서 '혼잡했다'는 탐방객은 7.1%인데 반해, '혼잡하지 않았다'는 탐방객은 75.7%나 되어 올레길은 비교적 한산한 것으로 인식

<표 4-2> 올레길 혼잡 정도

구 분		N	전혀 혼잡하지 않다	별로 혼잡하지 않다	보통	약간 혼잡 했다	매우 혼잡 했다	mean
전 체		268	30.2	45.5	17.2	6.0	1.1	2.02
코스	7코스	143	25.2	46.2	17.5	9.1	2.1	2.17
	10코스	125	36.0	44.8	16.8	2.4		1.86
성별	남성	145	30.3	44.1	18.6	4.8	2.1	2.04
	여성	123	30.1	47.2	15.4	7.3		2.00
연령	10대	19	15.8	36.8	36.8	5.3	5.3	2.47
	20대	33	15.2	72.7	12.1			1.97
	30대	52	38.5	44.2	7.7	9.6		1.88
	40대	63	23.8	52.4	19.0	4.8		2.05
	50대	69	33.3	33.3	23.2	7.2	2.9	2.13
	60대 이상	32	46.9	37.5	9.4	6.3		1.75

질문) 실제로 오늘 올레길은 혼잡했다

2) 올레길 탐방객수와 탐방만족도 영향

- 탐방객들이 탐방하는 올레길에서 탐방객 수가 많고 적음의 정도가 탐방 만족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인지 확인한 결과, 탐방객들은 탐방객수가 많으면 탐방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탐방객 만족도에 영향이 크다'는 응답은 49.2%인 반면,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응답은 25.8%에 불과해 '탐방객수가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밝혀짐

<표 4-3> 올레길 탐방객수와 탐방만족도 영향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9.0	16.8	25.0	36.9	12.3	3.27	
코스	7코스	143	10.5	17.5	22.4	34.3	15.4	3.27
	10코스	125	7.2	16.0	28.0	40.0	8.8	3.27
성별	남성	145	6.2	15.9	30.3	35.9	11.7	3.31
	여성	123	12.2	17.9	18.7	38.2	13.0	3.22
연령	10대	19	5.3	5.3	31.6	52.6	5.3	3.47
	20대	33	6.1	12.1	21.2	39.4	21.2	3.58
	30대	52	5.8	17.3	23.1	40.4	13.5	3.38
	40대	63	9.5	23.8	27.0	31.7	7.9	3.05
	50대	69	8.7	15.9	27.5	33.3	14.5	3.29
	60대 이상	32	18.8	15.6	18.8	37.5	9.4	3.03

질문) 탐방객의 많고 적음은 탐방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3) 올레길 탐방객의 탐방 방해 정도

-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에서 오늘 탐방객들이 많아 탐방을 방해했는지 하는 항목에서 탐방객들의 6.7%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고, 80.6%의 탐방객들은 다른 탐방객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았다는 응답을 보여 올레길이 올레꾼들로 많이 붐비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조사당일 7코스의 1일 탐방객수는 약 1,358명이었고, 10코스의 탐방객수는 약 315명으로 집계되었음

- 조사당일 육안으로 판단할 때도 올레길 탐방객수는 많지 않았고, 탐방객들 간에 서로 교차조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한산했었음

<표 4-4> 올레길 탐방객의 탐방 방해 정도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4.7	45.9	12.7	6.3	0.4	1.92
코스	7코스	143	35.0	45.5	11.9	7.0	0.7	1.93
	10코스	125	34.4	46.4	13.6	5.6		1.90
성별	남성	145	37.2	41.4	13.8	6.9	0.7	1.92
	여성	123	31.7	51.2	11.4	5.7		1.91
연령	10대	19	10.5	57.9	21.1	10.5		2.32
	20대	33	33.3	42.4	15.2	9.1		2.00
	30대	52	36.5	46.2	13.5	3.8		1.85
	40대	63	30.2	49.2	12.7	7.9		1.98
	50대	69	34.8	49.3	7.2	7.2	1.4	1.91
	60대 이상	32	56.3	28.1	15.6			1.59

질문) 오늘 탐방객들이 많아 나의 올레길 탐방을 방해했다

4) 올레길 소음 정도

- 오늘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이 시끄러웠는지 하는 항목에서 탐방객들의 4.4%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고, 79.1%의 탐방객들은 시끄럽지 않고 조용해서 올레길을 걷는데 방해받지 않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올레길 7코스와 10코스는 시내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주

로 바닷가 길을 활용한 탐방로로서 주변에 시끄러운 요소들이 많지 않아 탐방객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올레길을 탐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 4-5> 올레길 소음 정도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2.8	46.3	16.4	3.7	0.7	1.93	
코스	7코스	143	32.2	46.2	16.1	4.2	1.4	1.97
	10코스	125	33.6	46.4	16.8	3.2		1.90
성별	남성	145	34.5	46.2	13.8	4.1	1.4	1.92
	여성	123	30.9	46.3	19.5	3.3		1.95
연령	10대	19	26.3	47.4	26.3			2.00
	20대	33	30.3	45.5	24.2			1.94
	30대	52	36.5	44.2	15.4	3.8		1.87
	40대	63	28.6	47.6	17.5	6.3		2.02
	50대	69	33.3	42.0	17.4	4.3	2.9	2.01
	60대 이상	32	40.6	56.3		3.1		1.66

질문) 오늘 올레코스는 매우 시끄러웠다

5) 올레길 무질서 여부

- 오늘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이 무질서했는지 하는 항목에서 탐방객들의 4.5%만이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고, 84.3%의 탐방객들은 무질서하지 않고 한산해서 올레길을 걷는데 방해받지 않았다는 응답
- 조사당일 올레길 탐방객 수는 많지 않았고, 탐방객들 간에 서로 교차조우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 한산했고 올레길 7코스와 10코스가 주로 바닷가 길을 활용한 탐방로이어서 주변에 무질서한 요소들이 거의 없어 탐방객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올레길을 탐방

<표 4-6> 올레길 무질서 여부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4.7	49.6	11.2	3.0	1.5	1.87	
코스	7코스	143	34.3	50.3	11.2	2.8	1.4	1.87
	10코스	125	35.2	48.8	11.2	3.2	1.6	1.87
성별	남성	145	37.2	49.0	7.6	3.4	2.8	1.86
	여성	123	31.7	50.4	15.4	2.4		1.89
연령	10대	19	10.5	63.2	26.3			2.16
	20대	33	33.3	42.4	18.2	6.1		1.97
	30대	52	42.3	44.2	9.6	3.8		1.75
	40대	63	27.0	57.1	14.3		1.6	1.92
	50대	69	37.7	49.3	4.3	4.3	4.3	1.88
	60대 이상	32	46.9	43.8	6.3	3.1		1.66

질문) 오늘 올레코스는 매우 무질서했다

6) 올레길 탐방만족도

- 7코스와 10코스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측정한 결과, 탐방 만족도는 77.6%에 이르고 있고, 불만족하는 탐방객은 7.4%에 불과했으며, 보통정도의 만족감을 표시하는 탐방객은 14.9%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7코스 탐방객들의 만족도는 평균 4.05점(5점척도)으로서 10코스 탐방객들의 만족도 3.84점에 비해 좀 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30대들의 만족도가 4.10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4.00점), 60대 이상(4.00점) 순으로 만족도가 높았으며, 50대가 3.81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로 평가될 수 있음

<표 4-7> 올레길 탐방만족도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7	3.7	14.9	48.9	28.7	3.95	
코스	7코스	143	4.2	2.8	11.9	46.2	35.0	4.05
	10코스	125	3.2	4.8	18.4	52.0	21.6	3.84
성별	남성	145	4.1	3.4	17.9	44.1	30.3	3.93
	여성	123	3.3	4.1	11.4	54.5	26.8	3.98
연령	10대	19			36.8	36.8	26.3	3.89
	20대	33		3.0	27.3	45.5	24.2	3.91
	30대	52	1.9		15.4	51.9	30.8	4.10
	40대	63	3.2	1.6	11.1	60.3	23.8	4.00
	50대	69	7.2	7.2	8.7	50.7	26.1	3.81
	60대 이상	32	6.3	9.4	9.4	28.1	46.9	4.00

질문) 전체적으로 오늘 올레길 탐방은 만족스럽다

7) 올레길 탐방 불만족 이유

- 7코스와 10코스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만족도를 측정하여 불만족한 이유를 파악한 결과, 탐방객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음
 - 길이 끊어지는 곳이 있어 코스에서 이탈 위험 발생
 - 단체 관광객으로 인한 소음
 - 대중교통 이용시 불편
 - 바닷길 행보시 발에 모래가 들어가 불편함
 - 안내표시 미흡 및 부족
 - 올레 주변 지저분함, 쓰레기 많아 지저분함
 - 올레길 중간마다 쉼터가 없다
 - 테크길보다 자연길이 좋다

- 통행로 잡풀 정비해야
- 해변과 근접하지 않아서 싫다
- 해안가와 거리가 너무 길고 발이 빠져 불편함
- 용머리 해안과 사계 연결지점에 안내표지가 없어 길 찾기 어려움
- 편의시설 부족
- 화장실 부족

8) 올레길 재방문 의향

- 7코스와 10코스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의 올레 재방문 의향을 조사한 결과, 탐방객의 80.2%가 재방문의향을 밝히고 있고, '재방문 의향이 없는 경우'는 4.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재방문의향이 많은 탐방객은 7코스 탐방객, 30대 탐방객에서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8> 올레길 재방문 의향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1.5	3.4	14.9	62.7	17.5	3.91	
코스	7코스	143	0.7	2.8	10.5	66.4	19.6	4.01
	10코스	125	2.4	4.0	20.0	58.4	15.2	3.80
성별	남성	145	1.4	3.4	15.2	61.4	18.6	3.92
	여성	123	1.6	3.3	14.6	64.2	16.3	3.90
연령	10대	19	5.3	5.3	15.8	68.4	5.3	3.63
	20대	33		3.0	24.2	57.6	15.2	3.85
	30대	52		1.9	9.6	63.5	25.0	4.12
	40대	63		4.8	14.3	58.7	22.2	3.98
	50대	69	1.4	2.9	15.9	65.2	14.5	3.88
	60대 이상	32	6.3	3.1	12.5	65.6	12.5	3.75

질문) 오늘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을 다시 방문하겠다

9) 다른 시기 및 시간대 올레길 재방문 의향

- 7코스과 10코스를 탐방하는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기보다는 다른 계절·시간대에 방문할 의향’을 물은 결과, 탐방객의 69.0%가 이에 동의하고 있고, 동의하지 않은 탐방객은 16.8%로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7코스과 10코스가 혼잡해서라기보다는 다른 계절과 시간대에도 탐방을 계속하고자 하는 의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4-9> 다른 시기 및 시간대 올레길 재방문 의향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1.5	15.3	14.2	59.3	9.7	3.60
코스	7코스	143	1.4	12.6	15.4	57.3	13.3	3.69
	10코스	125	1.6	18.4	12.8	61.6	5.6	3.51
성별	남성	145	2.1	13.8	10.3	62.8	11.0	3.67
	여성	123	0.8	17.1	18.7	55.3	8.1	3.53
연령	10대	19		10.5	21.1	63.2	5.3	3.63
	20대	33		6.1	21.2	63.6	9.1	3.76
	30대	52		15.4	17.3	50.0	17.3	3.69
	40대	63	1.6	19.0	12.7	60.3	6.3	3.51
	50대	69	1.4	18.8	10.1	58.0	11.6	3.59
	60대 이상	32	6.3	12.5	9.4	68.8	3.1	3.50

질문) 지금 시기보다는 다른 계절에 방문하겠다

3. 올레길 적정수용력 분석

1) 올레길 탐방객 수

- 2013년 6월 22일~23일 양일간 7코스과 10코스 올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 수를 조사한 결과, 7코스의 경우 토요일은 1,775명, 일요일은 941명으로서 평균 1,358명이 탐방하였고, 10코스의 경우 토요일은 505명, 일요일은 125명으로서 평균 315명이 탐방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현장에서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탐방객수를 매시간별로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표 4-10> 올레길 탐방객 수

구분	요일	~ 8시	8~ 9시	9~ 10시	10~ 11시	11~ 12시	12~ 13시	13~ 14시	14~ 15시	15~ 16시	+ 16시	합계	1년 탐방객 추정 *
7 코스	토	7	40	150	509	203	127	92	253	387	7	1,775	496,670
	일	31	19	178	274	88	48	60	116	103	24	941	
	M	19	30	164	392	146	88	76	185	245	16	1,358	
10 코스	토	0	31	33	36	79	103	82	121	20	0	505	114,975
	일	0	4	15	9	23	25	29	12	8	0	125	
	M	0	18	24	23	51	64	56	67	14	0	315	

※ 추정식 : (1일 평균 탐방객수*365일)

- 위 자료를 토대로 1년 동안의 7코스 탐방객은 약 496,670명으로 추정되었고, 10코스 탐방객은 약 114,975명으로 추정되었음

2) 탐방인원 적정성 및 사회·심리적 수용력 추정

- 2013년 6월 22일~23일 양일간 7코스과 10코스 올레길을 탐방하는 탐방객 총 268명을 대상으로 오늘 탐방객수가 적정한지 물은 결과, 탐방객의 60.4%가 '오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33.6%이며,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는 탐방객은 6.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7코스의 경우에는 탐방객의 65.0%가 '오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28.7%이며,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는 탐방객은 6.3%인 것으로 나타남.
- 10코스의 경우에는 55.2%가 '오늘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고,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는 의견은 39.2%이며,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는 탐방객은 5.6%인 것으로 조사됨.

<표 4-11> 탐방인원 적정성

구 분	N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	현재 수준보다 줄어야 한다	현재 수준보다 늘어도 괜찮다	
전 체	268	60.4	6.0	33.6	
코스	7코스	143	65.0	6.3	28.7
	10코스	125	55.2	5.6	39.2
성별	남성	145	60.7	5.5	33.8
	여성	123	60.2	6.5	33.3
연령	10대	19	84.2	5.3	10.5
	20대	33	63.6	6.1	30.3
	30대	52	73.1	3.8	23.1
	40대	63	60.3	9.5	30.2
	50대	69	46.4	5.8	47.8
	60대 이상	32	53.1	3.1	43.8

질문) 오늘 방문하신 올레길의 탐방객은 어느 정도 되어야 적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 코스별 적정 증감률에 따른 사회·심리적 수용력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조사당일 탐방객 수(1,673명, 7·10코스 합산)보다 38.9% 정도 늘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코스별로는 7코스와 10코스가 각각 38.4%, 21.1% 늘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남

○ 7·10코스 증감율 분석

<표 4-12> 7·10코스 증감율 분석

증 감 율 (%)	빈도	퍼센트
-10% 줄어야	1	-10
-20% 줄어야	6	-120
-30% 줄어야	2	-60
-35% 줄어야	1	-35
-40% 줄어야	1	-40
-70% 줄어야	1	-70
5% 늘어도	1	5
10% 늘어도	9	90
20% 늘어도	9	180
30% 늘어도	17	510
40% 늘어도	2	80
50% 늘어도	14	700
59% 늘어도	1	59
60% 늘어도	2	120
70% 늘어도	4	280
100% 늘어도	15	1,500
200% 늘어도	1	200
합계	87명	3,389
평균		38.9%

○ 7코스 증감율 분석

<표 4-13> 7코스 증감율 분석

증 감 율 (%)	빈도	퍼센트
-10% 줄어야	1	-10
-20% 줄어야	2	-40
-30% 줄어야	1	-30
-35% 줄어야	1	-35
10% 늘어도	7	70
20% 늘어도	2	40
30% 늘어도	11	330
40% 늘어도	1	40
50% 늘어도	7	350
60% 늘어도	1	60
100% 늘어도	6	600
200% 늘어도	1	200
합계	41명	1,575
평균		38.4%

○ 10코스 증감율 분석

<표 4-14> 10코스 증감율 분석

증 감 율 (%)	빈도	퍼센트
-20% 줄어야	4	-80
-30% 줄어야	1	-30
-40% 줄어야	1	-40
-70% 줄어야	1	-70
5% 늘어도	1	5
10% 늘어도	2	20
20% 늘어도	7	140
30% 늘어도	6	180
40% 늘어도	1	40
50% 늘어도	7	350
59% 늘어도	1	59
60% 늘어도	1	60
70% 늘어도	4	280
100% 늘어도	9	900
합계	46명	1,814
평균		21.1%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7코스과 10코스의 1일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2,324명인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text{사회·심리적 수용력} &= \text{조사당일 탐방객수} \times (1 + 0.389) \\ &= 1,673\text{명} \times 1.389 = 2,324\text{명} \end{aligned}$$

- 이를 각 코스별로 재분석하면, 7코스의 1일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1,879명인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text{사회·심리적 수용력} &= \text{조사당일 탐방객수} \times (1 + 0.384) \\ &= 1,358\text{명} \times 1.384 = 1,879\text{명} \end{aligned}$$

- 10코스의 1일 사회·심리적 수용력은 381명인 것으로 나타남

$$\begin{aligned} \text{사회·심리적 수용력} &= \text{조사당일 탐방객수} \times (1 + 0.211) \\ &= 1,358\text{명} \times 1.211 = 381\text{명} \end{aligned}$$

4. 올레길 탐방실태 분석

1) 올레길 안내판 만족도

- 7코스과 10코스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올레길 안내판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한 결과, 탐방객의 41.8%가 만족하고 있고, 불만족하는 탐방객은 19.8%이며, 보통 정도의 만족감은 38.4%인 것으로 나타남.
- 7코스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50.4%인 반면, 10코스의 경우에는 '만족한다'는 의견이 32.0%에 불과해, 10코스 탐방길 안내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15> 올레길 안내판 만족도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4.5	15.3	38.4	32.8	9.0	3.26
코스	7코스	143	2.8	10.5	36.4	37.8	12.6	3.47
	10코스	125	6.4	20.8	40.8	27.2	4.8	3.03
성별	남성	145	5.5	14.5	40.0	32.4	7.6	3.22
	여성	123	3.3	16.3	36.6	33.3	10.6	3.32
연령	10대	19	5.3	5.3	63.2	21.1	5.3	3.16
	20대	33	6.1	30.3	27.3	30.3	6.1	3.00
	30대	52	1.9	15.4	32.7	42.3	7.7	3.38
	40대	63	3.2	17.5	44.4	23.8	11.1	3.22
	50대	69	4.3	7.2	34.8	43.5	10.1	3.48
	60대 이상	32	9.4	18.8	40.6	21.9	9.4	3.03

질문) 지금 탐방하고 있는 올레길의 안내판에 만족한다

2) 올레길 환경 청정성 인식

- 7코스와 10코스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올레길 환경이 깨끗한지' 파악한 결과, 탐방객의 60.5%가 '깨끗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13.4%는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7코스의 경우 '환경이 깨끗하다'는 응답이 74.1%에 이르는 반면, 10코스의 경우에는 '깨끗하다'는 의견이 44.8%에 불과해, 10코스 탐방길 환경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파악됨.

<표 4-16> 올레길 환경 청정성 인식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2.2	11.2	26.1	50.4	10.1	3.55
코스	7코스	143		5.6	20.3	58.0	16.1	3.85
	10코스	125	4.8	17.6	32.8	41.6	3.2	3.21
성별	남성	145	3.4	11.0	29.0	46.9	9.7	3.48
	여성	123	0.8	11.4	22.8	54.5	10.6	3.63
연령	10대	19		5.3	63.2	21.1	10.5	3.37
	20대	33	3.0	18.2	30.3	48.5		3.24
	30대	52	1.9	9.6	26.9	53.8	7.7	3.56
	40대	63	1.6	12.7	20.6	55.6	9.5	3.59
	50대	69	4.3	7.2	21.7	50.7	15.9	3.67
	60대 이상	32		15.6	18.8	53.1	12.5	3.63

질문) 올레길의 환경은 깨끗하다

3) 올레길 안전성 인식

- 7코스과 10코스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올레길 안전성'을 파악한 결과, 탐방객의 59.7%가 '안전하다'고 응답했고, 7.0%는 '올레길이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올레길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를 코스별로 분석하면, 7코스의 경우 '안전하다'는 응답이 68.5%에 이르는 반면, 10코스의 경우에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49.6%에 불과해, 10코스 탐방길 환경이 안전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표 4-17> 올레길 안전성 인식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0.7	6.3	33.2	48.1	11.6	3.63	
코스	7코스	143		3.5	28.0	52.4	16.1	3.81
	10코스	125	1.6	9.6	39.2	43.2	6.4	3.43
성별	남성	145	0.7	6.2	30.3	47.6	15.2	3.70
	여성	123	0.8	6.5	36.6	48.8	7.3	3.55
연령	10대	19		5.3	52.6	31.6	10.5	3.47
	20대	33		15.2	42.4	39.4	3.0	3.30
	30대	52		7.7	42.3	42.3	7.7	3.50
	40대	63		3.2	34.9	50.8	11.1	3.70
	50대	69	2.9	5.8	17.4	56.5	17.4	3.80
	60대 이상	32		3.1	28.1	53.1	15.6	3.81

질문) 올레길은 안전하다

4) 올레길 화장실 구비 여부

- 7코스와 10코스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올레길 화장실 구비 정도’를 물은 결과, 탐방객의 49.7%가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17.5%는 ‘잘 구비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전반적으로는 올레길 화장실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코스별로 분석하면, 7코스의 경우 ‘화장실이 잘 구비되어 있다’는 응답이 56%이고, 10코스의 경우에도 42.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8> 올레길 화장실 구비 여부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7	13.8	32.8	43.7	6.0	3.34
코스	7코스	143	1.4	12.6	30.1	47.6	8.4	3.49
	10코스	125	6.4	15.2	36.0	39.2	3.2	3.18
성별	남성	145	3.4	12.4	33.8	43.4	6.9	3.38
	여성	123	4.1	15.4	31.7	43.9	4.9	3.30
연령	10대	19		10.5	42.1	42.1	5.3	3.42
	20대	33	3.0	15.2	54.5	24.2	3.0	3.09
	30대	52	3.8	19.2	32.7	44.2		3.17
	40대	63		6.3	34.9	54.0	4.8	3.57
	50대	69	7.2	10.1	23.2	47.8	11.6	3.46
	60대 이상	32	6.3	28.1	21.9	34.4	9.4	3.13

질문) 올레길의 화장실은 잘 구비되어 있다

5) 올레길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 탐방객을 대상으로 '올레길 대중교통 이용편리성'을 파악한 결과, 탐방객의 35.1%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28.0%는 '편리하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편리성'에 대해 어느 정도는 불만족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를 코스별로 분석하면, 7코스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는 응답이 35.7%이고, 10코스의 경우에도 34.4%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9> 올레길 대중교통 이용편리성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5.2	22.8	36.9	29.1	6.0	3.08	
코스	7코스	143	2.8	23.8	37.8	27.3	8.4	3.15
	10코스	125	8.0	21.6	36.0	31.2	3.2	3.00
성별	남성	145	4.1	18.6	41.4	29.0	6.9	3.16
	여성	123	6.5	27.6	31.7	29.3	4.9	2.98
연령	10대	19		21.1	52.6	21.1	5.3	3.11
	20대	33	3.0	24.2	36.4	36.4		3.06
	30대	52		21.2	51.9	23.1	3.8	3.10
	40대	63	6.3	15.9	36.5	33.3	7.9	3.21
	50대	69	5.8	33.3	23.2	26.1	11.6	3.04
	60대 이상	32	15.6	15.6	34.4	34.4		2.88

질문) 올레길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6) 올레길 회로(回路) 편리성

- 올레길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回路)의 편리성에 대해 탐방객들의 37.4%가 '회로가 편리하다'고 응답했고, 14.9%는 '회로가 불편하다'고 응답함.
- 이를 코스별로 분석하면, 7코스의 경우 '회로가 편리하다'는 응답이 44.1%이고, 10코스의 경우에는 29.6%가 '편리하다'고 응답함.
- '회로가 편리하지 않다'는 응답은 7코스, 10코스 각각 9.1%와 21.6%로서 10코스 탐방객들이 '회로의 불편함'을 좀 더 토로하고 있음.

<표 4-20> 올레길 회로(回路) 편리성

구 분		N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mean
전 체		268	3.0	11.9	47.8	34.0	3.4	3.23
코스	7코스	143	2.8	6.3	46.9	38.5	5.6	3.38
	10코스	125	3.2	18.4	48.8	28.8	0.8	3.06
성별	남성	145	3.4	11.7	48.3	33.1	3.4	3.21
	여성	123	2.4	12.2	47.2	35.0	3.3	3.24
연령	10대	19	5.3	10.5	63.2	10.5	10.5	3.11
	20대	33	3.0	12.1	54.5	30.3		3.12
	30대	52		13.5	55.8	28.8	1.9	3.19
	40대	63	4.8	11.1	46.0	34.9	3.2	3.21
	50대	69	2.9	10.1	40.6	40.6	5.8	3.36
	60대 이상	32	3.1	15.6	37.5	43.8		3.22

질문) 올레길 탐방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회로, 回路)은 편리하다

5. 올레길 탐방 관련 기타 사항 분석

1) 올레길 적정 탐방 시간

- 올레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올레길 탐방 적정시간'을 파악한 결과, '3시간 이내 소요'(35.8%)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4시간 이내 소요'(31.0%), '2시간 이내 소요'(21.3%), '1시간 이내 소요'(11.6%), '4시간 이상 소요'(0.4%) 순으로 응답함.

<표 4-21> 올레길 적정 탐방 시간

구 분		N	1시간 이내	2시간 이내	3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이상
전 체		268	11.6	21.3	35.8	31.0	0.4
코스	7코스	143	18.2	25.2	32.9	23.1	0.7
	10코스	125	4.0	16.8	39.2	40.0	
성별	남성	145	9.7	21.4	38.6	29.7	0.7
	여성	123	13.8	21.1	32.5	32.5	
연령	10대	19	31.6	26.3	36.8	5.3	
	20대	33	6.1	27.3	42.4	24.2	
	30대	52	5.8	19.2	34.6	40.4	
	40대	63	9.5	14.3	34.9	41.3	
	50대	69	10.1	21.7	34.8	31.9	1.4
	60대 이상	32	21.9	28.1	34.4	15.6	

질문) 올레길을 탐방하는데 있어 적정한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2) 올레길 위험 요소

- 올레 탐방객들이 인식하고 있는 '올레길 탐방 중 위험한 요인'은 주로 아래와 같음.
 - 경사진 계단
 - 교통정리 안내원 배치
 - 해안가 바위길 위험
 - 사구올레길 보완
 - 한적한 산길 위험
 - 안내원 부족과 낙석 위험
 - 안내표지 부족으로 올레길에서 이탈하는 위험 발생
 - 올레길 주변 자동차

- 우천시 바닷길 위험
- 인적이 없는 곳에 대한 보안 강화
- 전체 코스에서 현 위치 지점 안내
- 취객의 접근
- 테크 노후로 흔들림, 쓰레기통 부족
- 해안가 추락 위험

3) 올레길 코스 길이 분할 조정 찬반

- 올레 코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소단위, 예를 들면 2~3킬로미터 길이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탐방객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찬성의견이 35.8%이고, 반대 의견은 25.7%이며, 보통은 38.1%임.
- 올레 코스 길이 분할 조정에 대해 반대(25.7%)보다는 찬성(35.8%) 응답이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2> 올레길 코스 길이 분할 조정 찬반

구 분		N	반대	보통	찬성	잘모름
전 체		268	25.7	38.1	35.8	0.4
코스	7코스	143	22.4	40.6	36.4	0.7
	10코스	125	29.6	35.2	35.2	
성별	남성	145	31.7	35.2	33.1	
	여성	123	18.7	41.5	39.0	0.8
연령	10대	19	15.8	57.9	26.3	
	20대	33	21.2	30.3	48.5	
	30대	52	34.6	42.3	23.1	
	40대	63	27.0	34.9	36.5	1.6
	50대	69	23.2	42.0	34.8	
	60대 이상	32	25.0	25.0	50.0	

질문) 올레 코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소단위, 예를 들면 2~3킬로미터 씩으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올레길 휴식년제 도입 찬반

- 올레길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름이나 야산이 포함되어 있는 올레길이 답압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올레길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찬성의견이 54.5%이고, 동의하지 않는 반대 의견은 16.8%이며, 보통은 26.1%인 것으로 조사됨.
- 올레길 휴식년제 도입에 대해 반대(16.8%)보다는 찬성(54.5%) 응답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23> 올레길 휴식년제 도입 찬반

구 분		N	반대	보통	찬성	잘모름
전 체		268	16.8	26.1	54.5	2.6
코스	7코스	143	14.0	24.5	58.0	3.5
	10코스	125	20.0	28.0	50.4	1.6
성별	남성	145	18.6	26.9	52.4	2.1
	여성	123	14.6	25.2	56.9	3.3
연령	10대	19	15.8	36.8	47.4	
	20대	33	9.1	21.2	69.7	
	30대	52	21.2	26.9	51.9	
	40대	63	11.1	27.0	58.7	3.2
	50대	69	18.8	27.5	49.3	4.3
	60대 이상	32	25.0	18.8	50.0	6.3

질문) 올레길 탐방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름이나 야산이 포함되어 있는 올레길이 답압에 의해 훼손되는 경우가 있어, 올레길 휴식년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올레길 코스 명칭변경 방안 찬반

- 현재 올레길은 1코스, 2코스... 7코스, 10코스 등의 형태로 작명되었는데, 이러한 명칭은 소비자(탐방객) 중심의 작명이라기보다는 공급자(개발자) 중심의 작명으로 볼 수 있고, 탐방객들 뿐 아니라 올레길에 대해 관광객 보다 더 많이 알 것으로 판단되는 제주도민들조차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임.
- 따라서 '몇 코스'라는 작명보다는 올레 인근지역의 특색있는 지명 또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작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
- 이러한 올레길 명칭 변경에 대해 동의하는 찬성의견이 54.9%이고, 동의하지 않는 반대의견은 17.9%인 것으로 조사됨.
- 올레길 명칭 변경에 반대(17.9%)보다는 찬성(54.9%) 응답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면, '7코스 대평리 올레길'(병기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5코스 남원포구 올레길' 등의 형태로 작명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표 4-24> 올레길 코스 명칭변경 방안 찬반

구 분		N	반대	보통	찬성	잘모름
전 체		268	17.9	24.6	54.9	2.6
코스	7코스	143	18.2	25.2	53.1	3.5
	10코스	125	17.6	24.0	56.8	1.6
성별	남성	145	20.7	26.2	51.0	2.1
	여성	123	14.6	22.8	59.3	3.3
연령	10대	19	10.5	36.8	52.6	
	20대	33	21.2	24.2	54.5	
	30대	52	21.2	30.8	48.1	
	40대	63	14.3	19.0	63.5	3.2
	50대	69	15.9	24.6	55.1	4.3
	60대 이상	32	25.0	18.8	50.0	6.3

질문) 올레길의 명칭이 '7코스', '10코스' 등 숫자로 되어 있어 해당지역에 대한 연결홍보 미흡과 해당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코스 명칭을 '해당지역의 명칭, 예를 들면, 광치기길, 대평리길 등으로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종합관리시스템 도입

- 탐방객을 통제할 강제수단이 없는 현시점에서 수치화된 수용력(사회·심리적)은 숫자에 불과하므로 결국 올레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생태적 수용력 관리는 다양한 측면(탐방객 수, 시·공간적 탐방집중도, 탐방로 훼손정도)을 통해 이루어져야 함
- 즉, 1단계로 올레길의 자원, 시설, 탐방객 특성, 관리여건을 반영한 명확한 올레길 관리목표 및 지역설정, 2단계로 탐방영향에 따른 자원변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영향지표 및 평가기준(indicator & standard) 개발, 3단계로 선정된 영향지표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4단계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비교 및 원인 분석, 마지막 5단계로 영향지표 값이 평가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 적절한 올레길 관리전략을 마련·시행해야 함
- 단, 본 연구에서 올레길의 적정 수용력 관리를 위한 정책여과 장치로서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임. 따라서 효율적인 올레길 관리를 위해서는 명확한 올레길 관리목표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향후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영향지표의 수정·변경 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기준 마련이 적정 수용력 관리의 핵심임

2.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 올레길 및 지리산 둘레길, 강원도 산소길을 중심으로 국내코스가 외국에 알려지면서 이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안내를 위한 다국어의 브러셔와 표지판 제작은 미흡한 편임
- 올레길 코스별 다국어안내 지도 혹은 표지판에 다국어 표기를 실시하여 외국인들의 편의를 도모.

- 특히 올레길 탐방객 만족도에서 안내표지 부족이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올레길 탐방 중 위험한 요소나 요인으로 표지판 부족이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설치 필요

3. 스토리텔링을 통한 코스별 명칭 부여

- 코스별 스토리텔링이나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코스에 대한 매력도를 높여 지역민들을 위한 코스로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위한 휴양·여가·교육적 공간으로의 개발이 필요
- 특히 올레길 명칭 변경에 반대(17.9%)보다는 찬성(54.9%) 응답이 훨씬 더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향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4. 코스 분할 개설

- 돛배낭길~속골 해안변 탐방로의 위험으로 인해 우회하여 코스가 진행되고 있는 바 탐방로 개설이 필요하여 돛배낭길~속골을 연결하는 신규 탐방로 개설
- 올레 7코스는 중국인 및 학생 단체 탐방객들의 집중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3시간 이내를 원하는 탐방객이 반대 25.7%에, 찬성 35.8%로 10%p 이상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신중한 정책적 판단 필요

5. 화장실 개선

- 현재 올레길 7코스에는 고정식 자연발효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어 올레길 7코스에서의 화장실 이용은 개선될 것으로 보임
- 향후에도 화장실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화장실의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탐방객을 배려하는 시설개선 및 관리방안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참고문헌>

제주발전연구원(2008), 한라산 탐방객 적정수용관리 방안 수용력 모형개발 및 수용력 산정.

강원발전연구원(2009), 국내외 트레일 개발 사례와 시사점.

경남발전연구원(2010), “느림의 가치” 걷는 길의 확산에 따른 경남의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2010), 도보여행 활성화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Abstract

Research & Analysis of appropriate demand for ecological & cultural trails such as Jeju Ollegil, Soopgil, and Dulegil

For the last few years, a lot of ecological and cultural trails have appeared nationwide; Ollegil, the prominent tourist site for 'slow tourism', and Soopgil and Dulegil which are ecological and cultural visiting sites. However, increasing number of visitors have been treading on those trails, destroying the areas little by little. Garbages thrown by tourists are also causing damage to the environment. So, there arises the need for analyzing the appropriate demand of visitors, so that we can seek sustainability of those trails. This paper tries to find out the current traffic volume on those trails and suggests improvements to the present problems. For that purpose, survey was given to the visitors to identify problems and possible solutions. The following shows the results of analysis of the appropriate demand for the afore-mentioned trails based on the survey(Ollegil, Soopgil, and Dulegil).

① Combined maintenance system is necessary. Currently, there are no ways to control the number of visitors. And the capacity(social & emotional) identified in numbers does not help much. Therefore, the management of ecological capacity of Ollegil should be considered in various aspects(number of visitors, concentration of visits in terms of time and space, level of damage on the trail). For effective management of Ollegil, setting up of the definite goal for the management should come first. Afterwards, to maintain appropriate capacity level, we need to come up with evaluation criteria through continuous monitoring and

modification of impact indexes in accordance with social/ environmental changes in the future.

② Additional sign posts are necessary. As the Korean walking trails get more and more popular even among foreigners, a lot of foreign visitors are coming to these famous trails such as Ollegil, Dulegil in Jiri mountain, and Sansogil in Kangwon province. But there are not enough brochures and signposts written in various languages to guide them.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 visitors, more guiding books and signposts should be ready in various foreign languages. According to the survey for the level of satisfaction from the visitors, lack of signposts appeared as one dissatisfying factor. Especially, in survey questions regarding Ollegil, lack of proper signs was mentioned as being risky. Therefore, increasing the number of signs is necessary.

③ Each course in the trail needs a name based on storytelling. Development of storytelling or contents will make local residents more involved in each course. Each course should be a space for recreation and leisure for travelers, serving educational purposes as well.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more respondents agree to changing the name of Ollegil(54.9%) versus 17.9% opposed to it. Considering this, we need to deliberate on the matter in the future.

④ The trail should be divided into multiple courses and open to the public separately. Currently, the trail is partly open to the public due to the fact that the current course covering Donbaenanggil through the coastal course Sokgol is considered dangerous. So a new course should be open as soon as possible. Along with the new course to be opened covering Donbaenanggil through Sokgol, Olle 7 courses are places where Chinese and student visitors are concentrated. In regard to the survey

question asking if the visitors want less than three hours of treading on the course, 35.8% answered 'Yes', exceeding those who said 'No'(25.7%), alerting us to be cautiou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⑤ Bathrooms need to be improved. Currently, there are two kinds of bathrooms-natural fermentation bathroom and makeshift bathroom-in 7 courses of Ollegil. So we can expect the bathroom experience in Ollegil to get better in the future. To install more bathrooms is not the key. Continuous improvement is required in terms of convenience and comfort for the visitors.

연구진

연구책임 김철수 전 한라산연구소 소장
공동연구 양진철 미래리서치 대표
연구보조 김일두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
강미선 제주아동심리상담센터 수석연구원

현안연구 2013-11

올레길·숲길·둘레길 등 생태·문화 탐방길 적정수요 분석 연구

발행인 || 공영민
발행일 || 2013년 9월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690-162 제주도 아연로 253(오라이동)
전화: (064) 726-0500 팩스: (064) 751-2168
홈페이지: www.jdi.re.kr
인쇄처 || 일신옵셋인쇄사

ISBN : 978-89-6010-330-6 93320

- 이 보고서는 외부 공모과제로 수행된 연구로 제주발전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